

전북국제교류센터 경영체계 개선 및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최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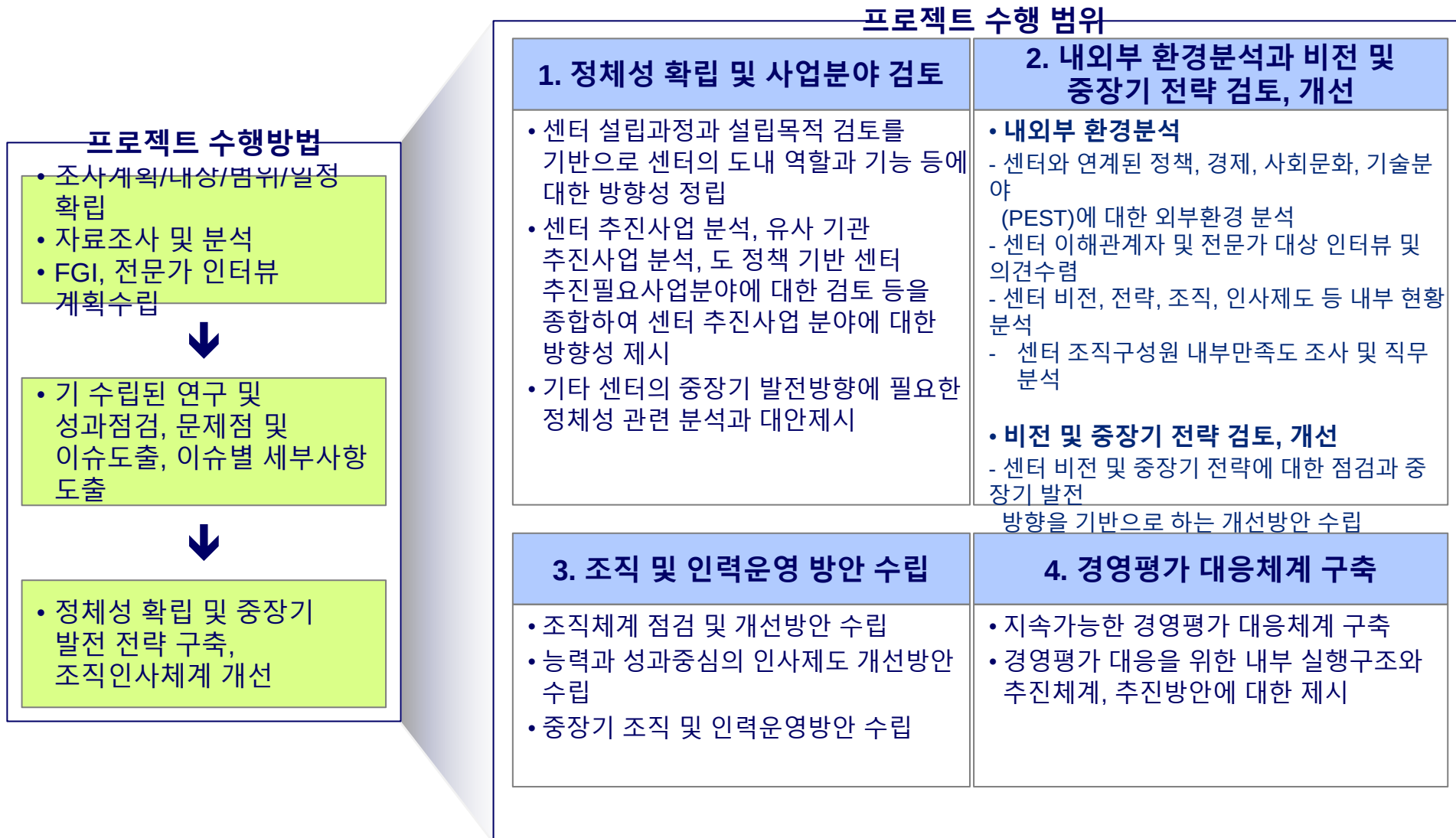
2020. 8.

I.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적
2. 프로젝트 범위
3. 프로젝트 추진체계
4. 프로젝트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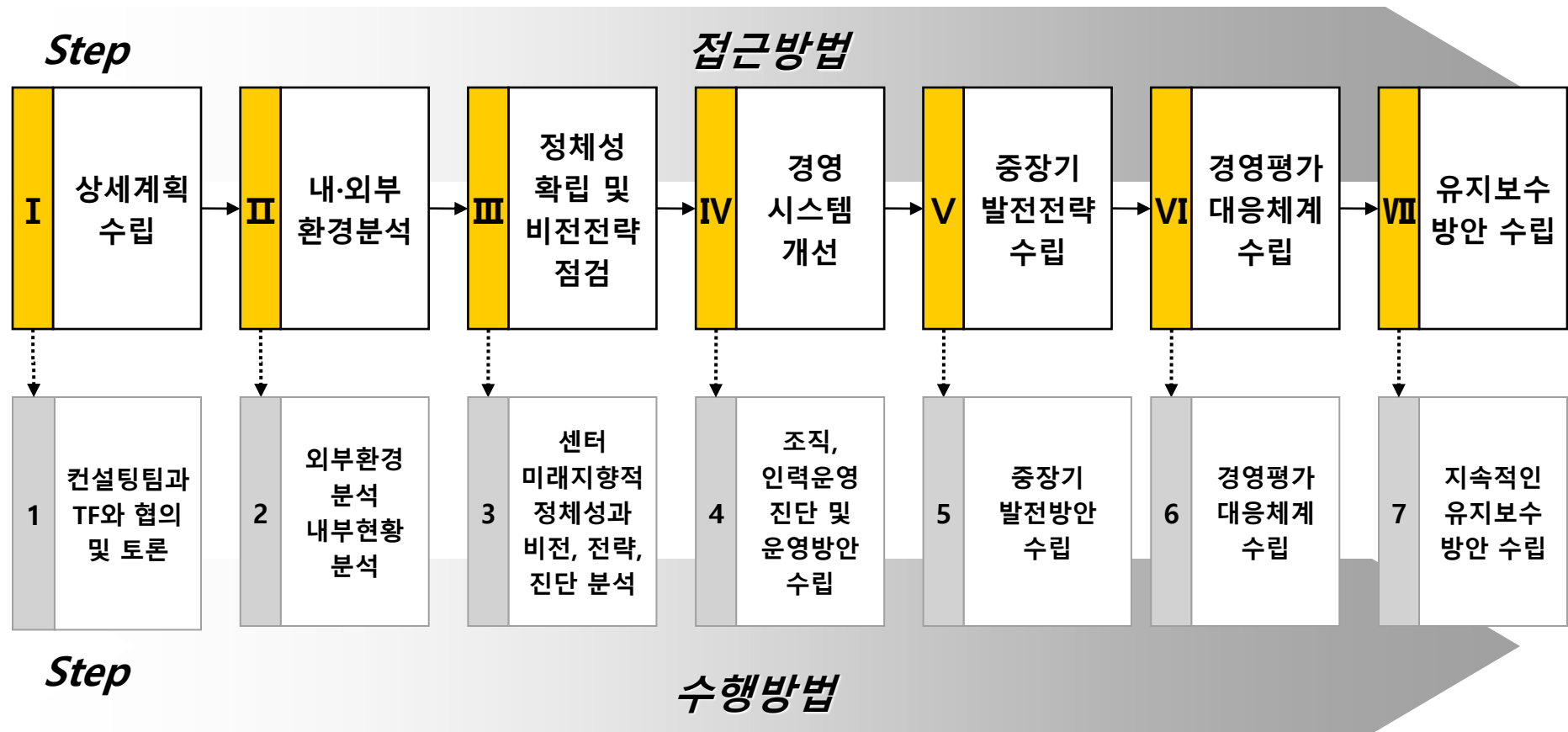
프로젝트 범위

본 프로젝트는 정체성확립과 사업분야 검토, 환경/현황분석과 중장기 발전전략 구축,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추진 접근 방법_Framework

본 프로젝트는 연구계획을 확정된 후, 국제교류센터 Identity에 대한 확립과 함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총 7 단계로 수행하였습니다.



추진일정

본 프로젝트는 총 3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추진일정

		M				M+1				M+2			
수행업무													
전북 국제교류센터 경영체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1. 상세계획 수립												
	2. 내외부 환경분석												
	3. 정체성 확립 및 비전전략 진단												
	4. 경영시스템 개선												
	5.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6. 변화관리 지원												
	7. 유지보수 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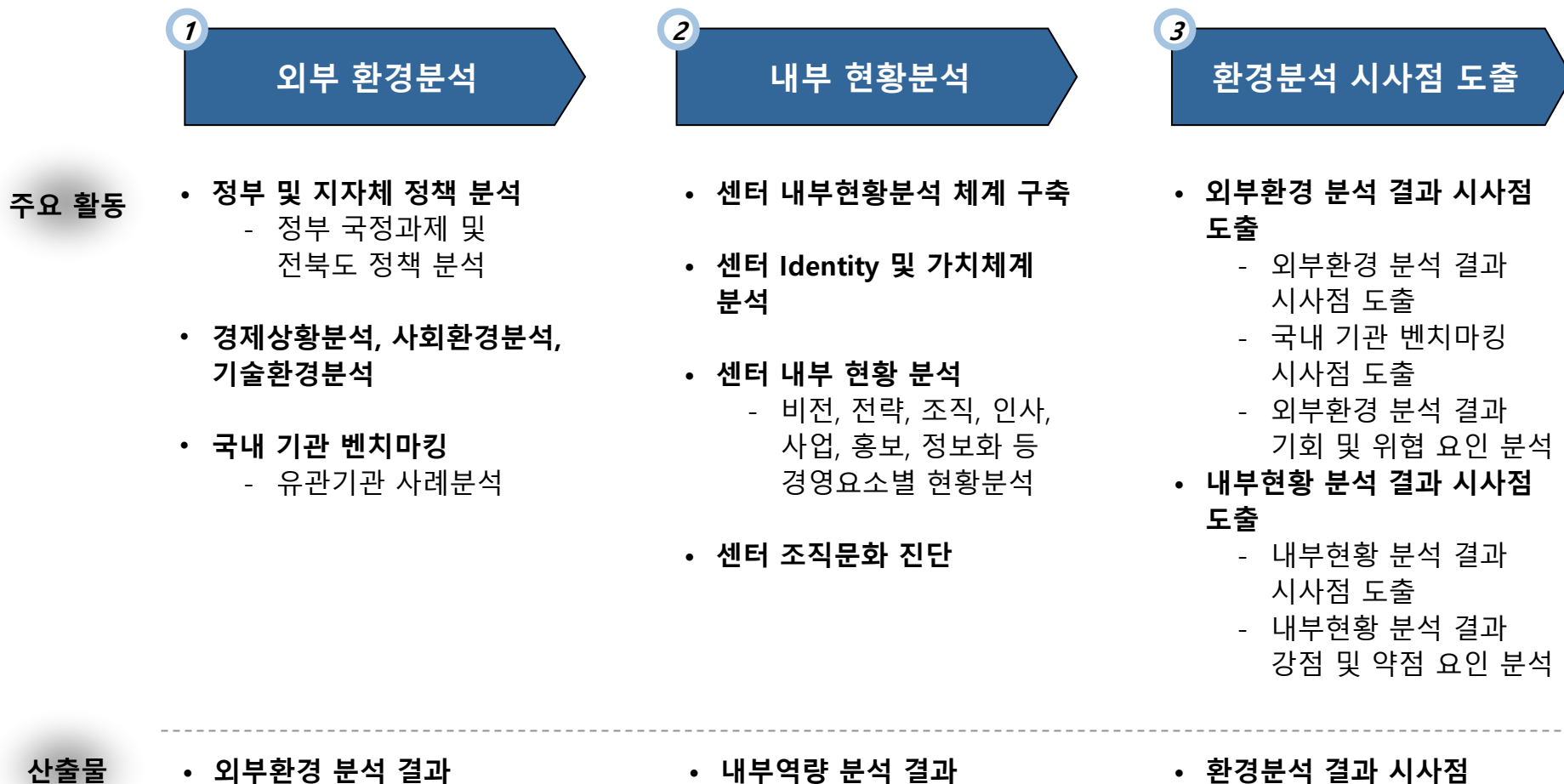
II. 외부 환경분석 및 내부 현황분석

1. 수행방법
2. 용역수행내용 및 세부사항

외부환경분석 및 내부현황분석_Framework

외부환경분석 및 내부현황분석 단계는 외부환경분석과 내부현황분석, 분석결과의 시사점 도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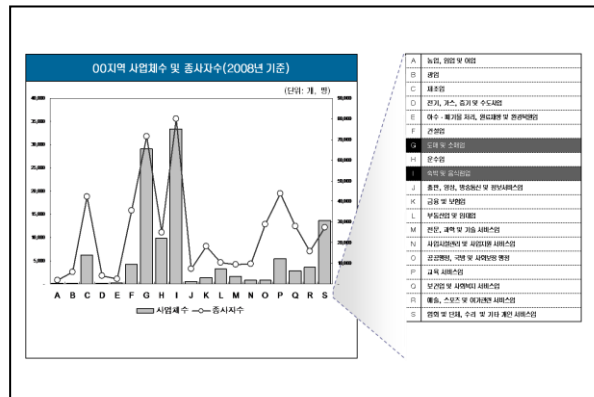
환경분석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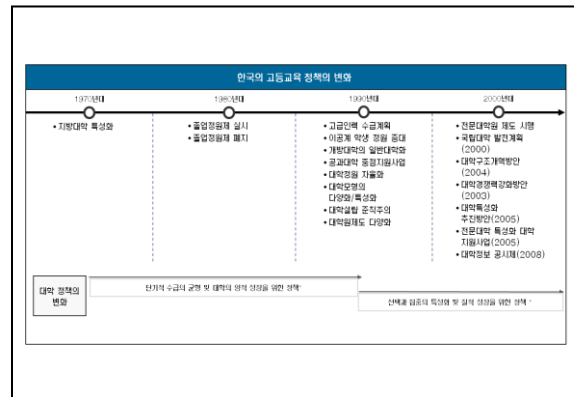
외부환경분석_Framework

외부환경분석은 PEST 분석과 함께 유사기관 사례분석 등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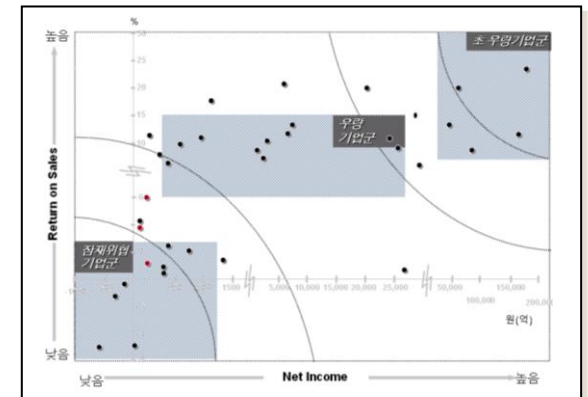
정책분석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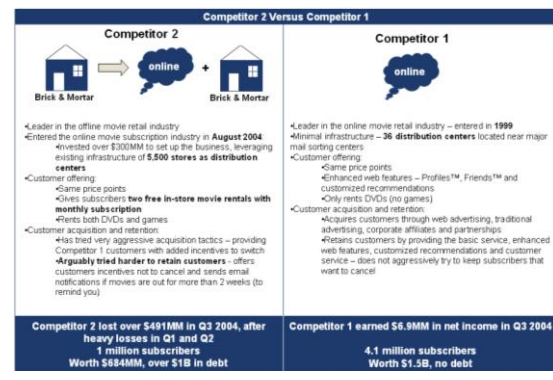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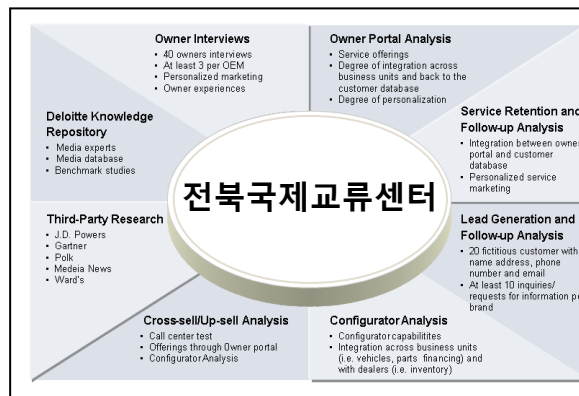
경제현황 분석(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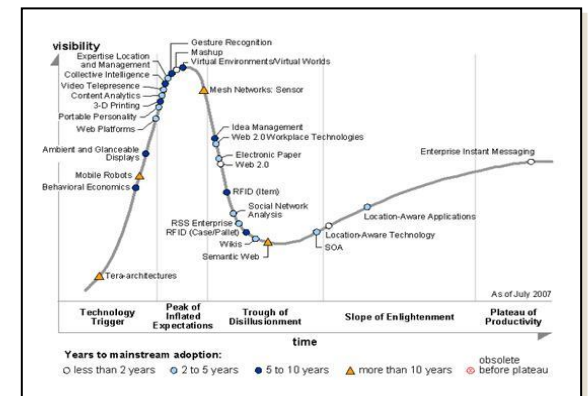
사회환경 분석(Social)



Benchma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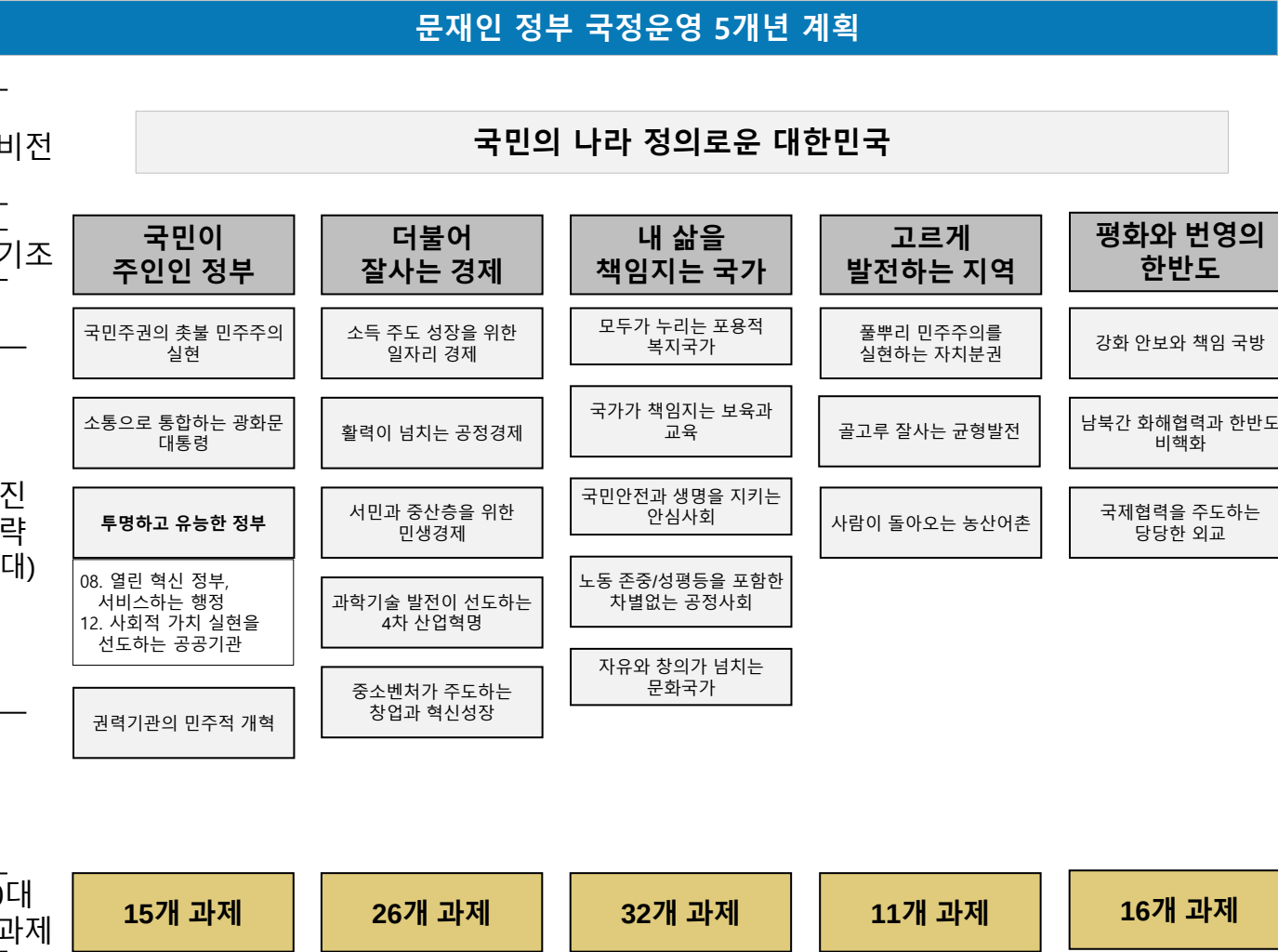


기술환경분석(T)



외부환경분석_정책분석_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기조, 20대 추진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국제교류센터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기조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운영 방향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책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설계도로 활용
 - 주권자인 국민과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주체인 국회·행정부, 그리고 기업과 단체 등 각 주체에 국정운영 계획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시함으로써 국가 전체 운영의 예측 가능성 증대
 -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국가운영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 기반을 확대

※ Source : 청와대 홈페이지 , '국정과제 체계도'

외부환경분석_정책분석_100대 국정과제별 연관성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다수의 과제가 전북국제교류센터와 연관될 수 있으며, 거시적 측면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외교 및 자치분권 정책 : 당당한 외교와 균형발전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국정과제	주요내용	Key Findings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 자치분권 기반확보, 국가 기능 지방이양,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마을자치 활성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 실행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전북도의 자치분권 강화로 주체적 국제교류 강화예상
② 더불어 잘 사는 경제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	78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	전북도 특화 국제교류 추진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도모 •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민간·지자체 자율성 확대 •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확충	남북교류 관련 전북도의 노력 필요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동심어촌	96 ~ 99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증진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9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공공외교, 국제교류의 중요성 강조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Source : 2017.0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부환경분석_정책분석_외교부 2020년 업무추진계획

외교부 2020년 업무추진계획에서 6대 핵심과제 중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등이 전북국제교류센터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2020년 업무추진계획

국정 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과제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동북아를 위한 적임공동체 형성 • 애외체류 국민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	---

업무 추진 여건 ▪ (한반도) 19.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북미대화·남북관계 정체 속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 (외교안보) 규범기반 국제질서 약화, 미중 전략적 경쟁, 과거사영토 문제 등 역내 불안정 증대 ▪ (영사) 전염병 확산, 초국경적 환경오염 등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대외 위협 요소 증가 ▪ (경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대두	
--	--

핵심 과제	1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 대통령·총리 간 역할분담 통해 전략적·효율적 정상외교 추진 ▪ 아중동·유럽·중남미의 정상외교 활성화 ▪ 주요 외교밀정(ASEAN, APEC 등) 적극 활용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 남북미 대화 모델링 재점화 ▪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 비핵화 대화 대비 안미간 전략 조율 지속 ▪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위한 노력 지속
	3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 ▪ 홍콩라운드 안중외교 ▪ 한일관계의 안정과 개선 ▪ 한러 관계의 획기적 발전
	4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신남방·북방 본격화 ▪ 신남방 2.0(가칭) 통한 협력 네트워크 다변화 ▪ 신북방 협력의 해 계기 가시적 성과 도출 안중일 정상외교의 성공 개최 ▪ 3국협력 정례회와 중요성 확인 및 제도와 ▪ 국민경제협력 사업 발굴 및 부대행사 개최 P4G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 대국민 제감서 제고 ▪ 중견국 위상 제고 ▪ 환경기업 해외진출 촉진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다자무대 기여·역할 확대 ▪ 유엔총회 참석 ▪ MIKTA 의장국 수임 ▪ 개발협력 강화 ▪ NPT 적극 활용
	5 국민안전 증진 및 신중안보 외교 전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구축 ▪ 사전사고 예방체계 강화 ▪ 영사서비스 혁신 전염병 대응·미세먼지 ▪ 코로나19 계기 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 ▪ 미세먼지 등 대기 질 개선 위한 국제협력 주도
	6 융복합 외교 전개 전략적 경제외교 ▪ 경제 파트너십 강화 ▪ 국민경제 실질적 지원 국민외교·공공외교 ▪ 대국민 소통, 지자체·국외 협업 ▪ 소프트파워 강국 입지 공고화 외교역량 강화 ▪ Team Korea 체제 정착 ▪ 조직 효율화 지속

쟁점 과제	미중간 전략경쟁에 대한 능동적 대응 ▪ 확대협력 외교 ▪ 일관성 있는 외교 ▪ 전략적 경제외교 ▪ 정책기반 확대
--------------	--

가. 신남방정책 2.0(가칭) 및 신북방정책 본격화

- 신남방정책 2.0(가칭)*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다변화·다층화
- 「신북방 협력의 해」계기,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협력 지평 확대

라. 다자무대에서의 기여 및 역할 확대

- 국제사회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추진

가. 국익을 확대하는 전략적·선제적 경제외교 추진

- 주요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 국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외교 추진

나. '국민 지향' 외교 전환을 체감할 수 있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 대국민 소통·참여 활성화 및 지자체·국회와의 협업 강화
-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공공외교 청사진 수립

- 외교부 2020년 업무추진계획 중 신남방정책, 다자무대에서의 기여 및 역할 확대, 전략적, 선제적 경제외교 추진,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등의 과제는 전북국제교류센터의 사업방향, Identity 등에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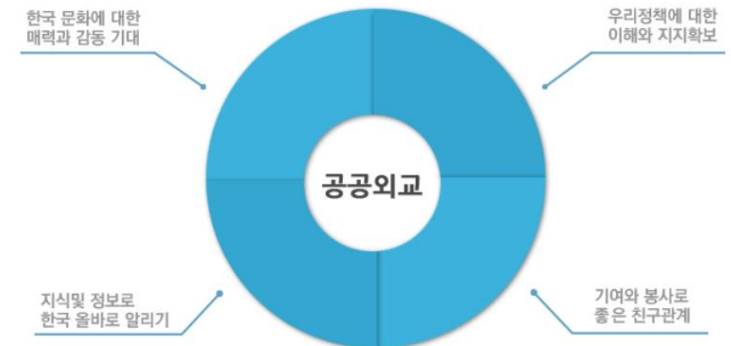
외부환경분석_정책분석_외교부 공공외교 정책 및 공공외교 정의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 공공외교 비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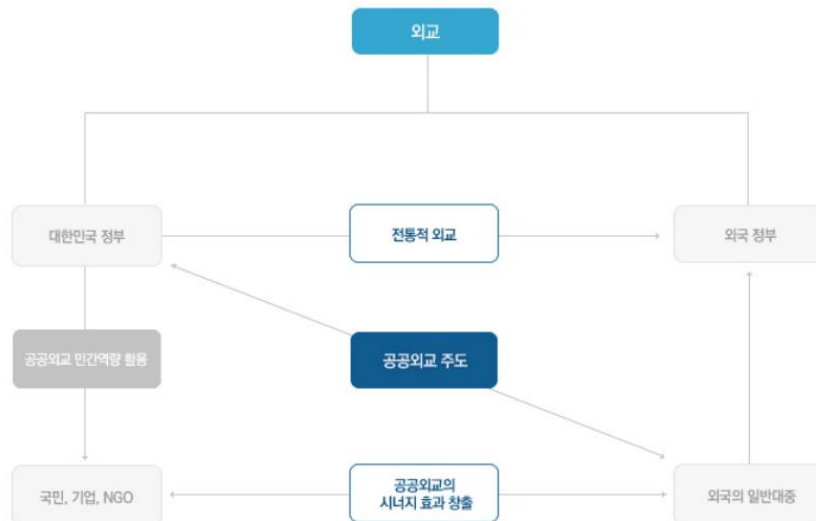
공공외교란?

-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
- 정부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Foreign Public)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공공외교의 기본 컨셉

공공외교란?



공공외교의 개념



우리의 공공외교 비전

■ 문화공공외교

한국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전세계 국민들에게 한국의 호감도를 증진시키고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을 확산하며,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타국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 지식공공외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을 위해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교육학술협력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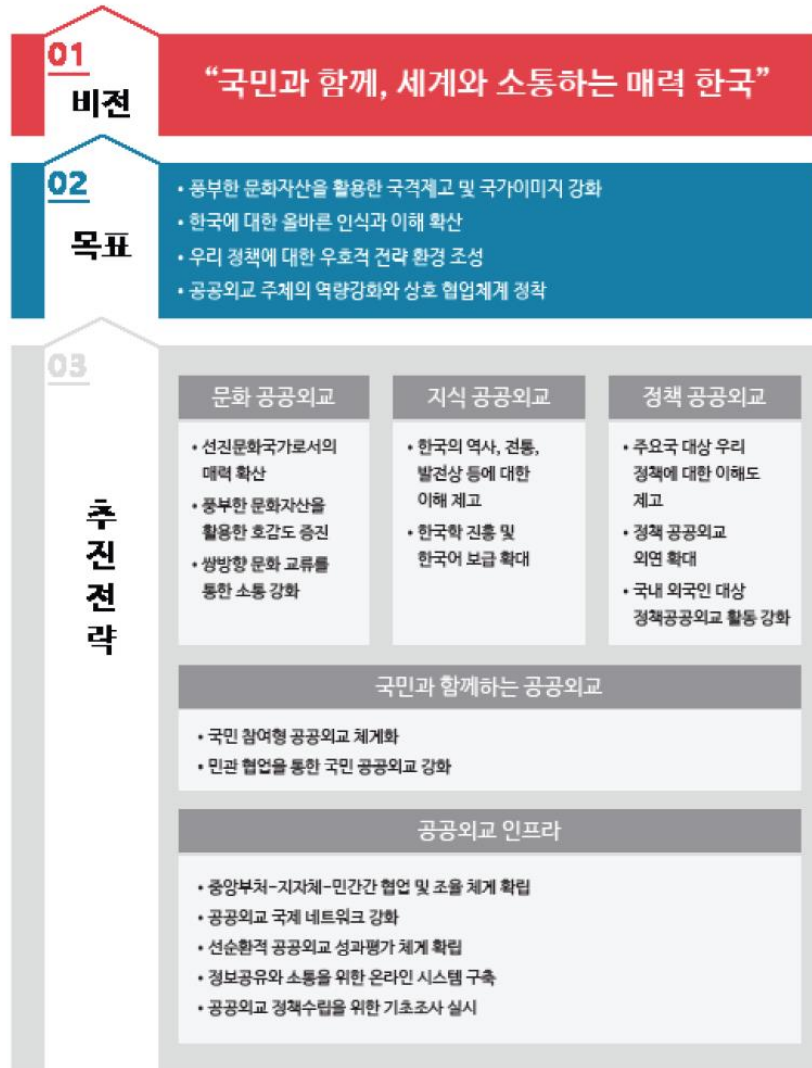
■ 정책공공외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정부 핵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전문가), 언론 등 외국의 여론주도층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공감대를 증진하기 위한 외교 분야입니다. 현재 정책공공외교 대상과 수행방식, 주제의 다변화를 통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외연 확대를 꾀하고 있고 주한 외국인 및 유학생과의 교류 및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환경분석_정책분석_외교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년~2021년) 01

외교부 공공외교 비전 및 전략 추진체계에서 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협업체계를 인프라로 강조하고 있으며, 전북국제교류센터는 이와 관련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 공공외교의 핵심 자원은 자치단체, 민간부분의 다양한 협회, 기관, 협의체 등으로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국제교류재단 및 센터 등의 산하기관의 역할은 공공외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광역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국제교류관련 산하기관은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수행하기 원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이를 공공외교라고 정의할 수 있음)
-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치단체와 연계된 부분은 공공외교 인프라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공외교 인프라 측면에서 하나의 축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자치단체는 외교부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각 자치단체가 해당하는 분야와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음
- 국제교류재단 및 센터 등을 보유한 자치단체의 경우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고, 공공외교 네트워크 및 자원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해 재단 및 센터를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전북국제교류센터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국제교류 계획 및 추진체계의 실행 프로세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외부환경분석_정책분석_외교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년~2021년) 02

공공외교 기본계획 중 중점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

● '중앙-지방 국제교류 협의회'* 운영 활성화 (외교부, 행안부, 지자체)

- 동 협의회 계기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관련 정보 공유, 지자체 애로사항 청취, 지자체 공공외교 역량강화 방안 논의, 유관기관간 협업방안 모색, 중앙-지방간 유사·중복 혹은 충돌되는 업무 조정 등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주요정책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주최로 분기별 개최 /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의 국제교류담당관(또는 국장) 참석



[공공외교법 제9조 1항] 지자체에 대한 지원

- 국가는 지자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행안부, 지자체)

- 6개국 해외사무소(일본, 중국,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와 재외공관과의 협업 강화
-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는 1999년부터 'K2H(Korean heart to heart)'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외 각급 지자체간 교류 및 공무원 상호파견 추진 중 / 2013년부터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지자체 국제업무담당관 회의*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 파견 '국제관계대사'* 활용

- 지자체 국제교류 지원, 외교현안과 외교정책 방향 설명 및 외교부의 대외교류 노하우 공유
- * 2016.7월 회의시 공공외교 워크숍 개최가 건의된바, 2017년부터 지자체 대상 공공외교 워크숍 개최 추진 중
- ** 지자체의 국제화 역량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역임한 인사 파견(17.3월 현재 14개 지자체에 15명 파견)

● 재외공관 공공외교와 지자체 국제교류 연계 (외교부, 지자체)

- 지자체의 국제교류 방향 설정시 재외공관의 의견 반영 및 공공외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 공관 발령 직원의 출국 전 근무지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담당관과의 협의회* 개최
- * '16.7.29 제1차 외교부-지자체 정기 업무협의체 개최

● 지자체 독자 브랜드 해외 홍보 지원 (외교부, 지자체)

- 지자체 주최 국제행사 유치* 지원, 지역별 이점과 특색을 살린 페스티벌과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 행사 접목** 등
- * '2024년 세계지질과학총회' 부산시 유치, 2017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정상회의(APCS)' 대전 유치 등
- ** K-Pop 월드 페스티벌(창원), 재외공관 韓스타일 사업(전북) 등

●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교육부)

- 한국교육원과 국내 교육기관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 강화

③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역할 강화

● 공공외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을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 (외교부)

- KF의 전문성 발휘가 기대되는 공공외교 사업 위탁

● 공무원 및 국민의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KF의 역할 제고 (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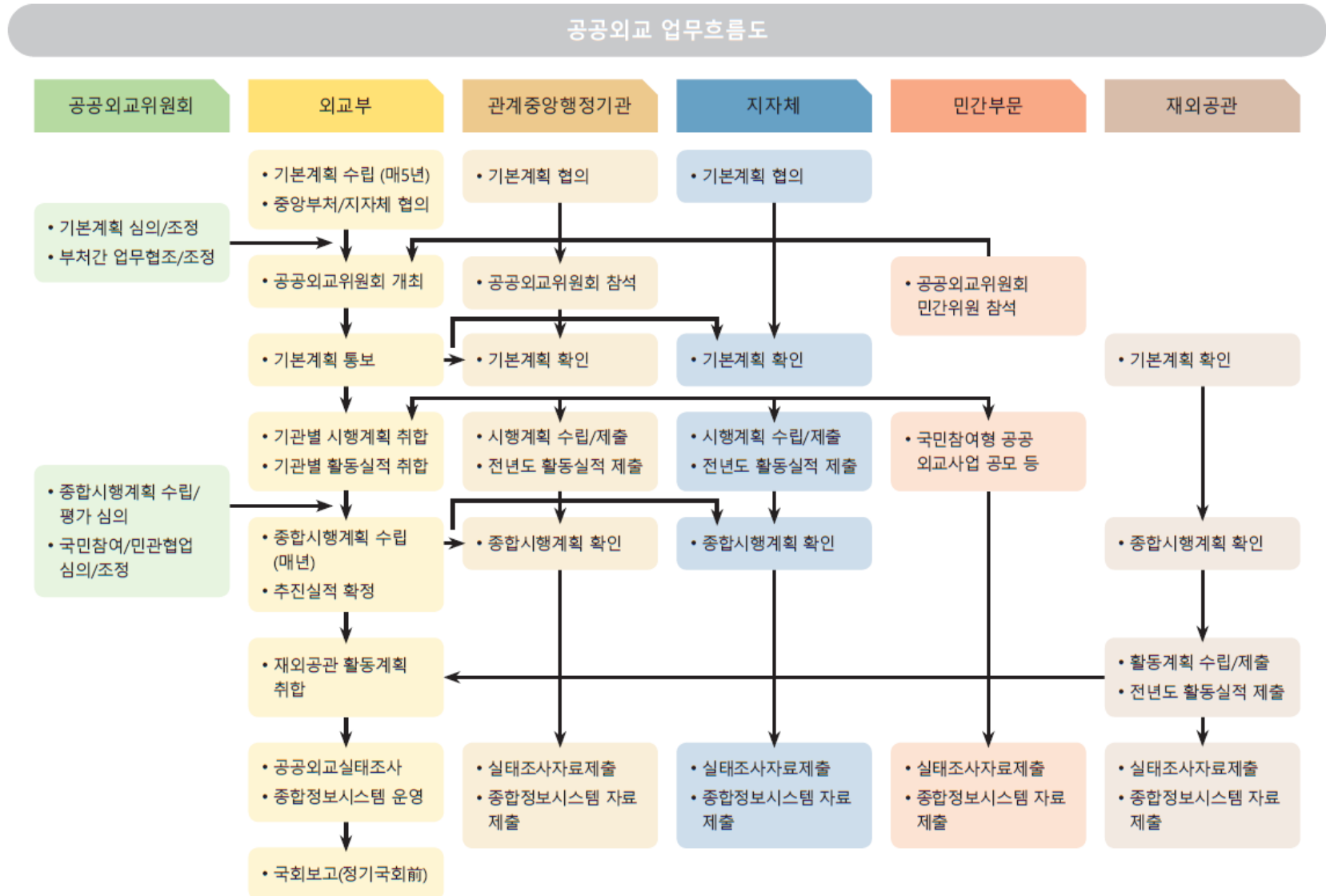
- 문화권별·지역별 공공외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등 모든 공공외교 주체가 현지맞춤형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 공공외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제업무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대국민 공공외교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교육 실시

● 공공외교 전문성 강화 및 기획역량 제고를 위한 KF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 (외교부)

외부환경분석_정책분석_외교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년~2021년) 03

공공외교 기본계획 중 각 기관별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환경분석_정책분석_2020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_전라북도

시행계획

2020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 전라북도 시행계획 부분을 보면, 네트워크 강화, 홍보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북국제교류센터의 사업추진계획과 전략체계는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합니다.

2020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전라북도 2020년 공공외교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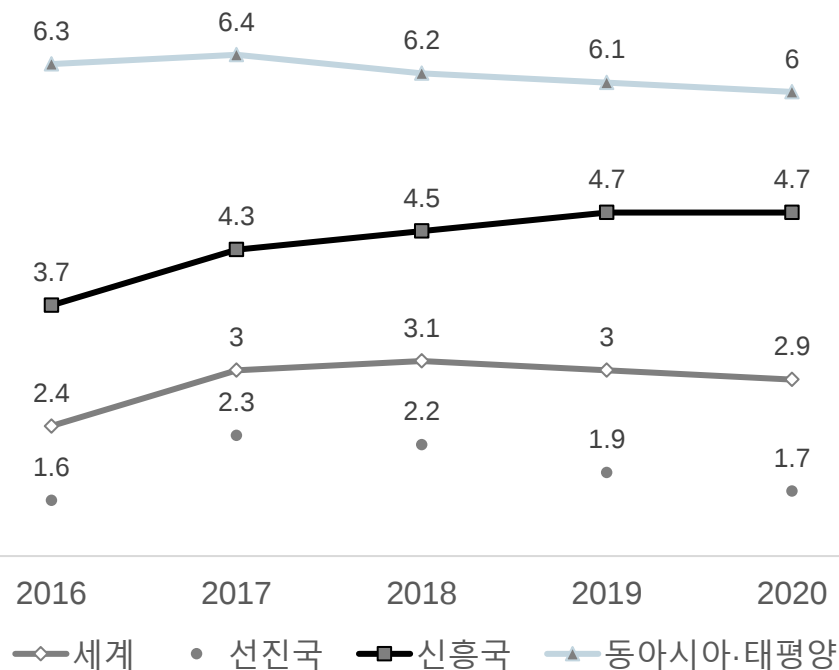
세부과제명	사업수	'20년 예산 (백만원)
전략 2.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10	2,816
2-1-③ 한국예술품 소개공간으로서 재외공관과 문화원 활용	1	600
2-2-② 전통·현대 한국 문화의 체계적 전파	4	373
2-2-⑤ 한식 홍보 강화	1	1,443
2-2-⑥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 제고	2	85
2-3-①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2	315
전략 3.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6	362
3-1-② 해외에서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	3	180
3-1-④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100
3-2-③ 해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1	82
전략 4.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2	44
4-1-② 주요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추진	1	27
4-3-② 주한 외신 기자단 및 외교단의 정책 이해도 제고	1	17
전략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2	118
5-1-②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1	73
5-2-② 민간 공공외교 저변 확대	1	45

- 외교부는 2020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020년 공공외교 시행계획으로 5대 전략 12개 과제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핵심은 자매우호도시 및 지역의 확대, 한옥 등을 활용한 국가이미지 제고, 도내 외국인 대상 외교활동, 도민의 글로벌 인식 양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
- 전라북도의 경우 22년, 23년 대형 행사를 연속으로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대외적인 교류체계의 강화 등을 통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한 전북국제교류센터의 비전과 전략체계, 2020년 실행과제 및 추진계획 등은 전라북도의 시행계획 등이 반영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을 분석해야 함

외부환경분석_경제환경분석_코로나 이전의 세계경제전망

COVID-19 이전까지 세계은행은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은행(WB)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의 리스크는 '17.6월 전망에 비해 상방요인과 하방 요인이 보다 균형을 이룬 상황(more balanced)으로 평가

- 상방요인(upside risk): 예상에 비해 높은 경기 성장세

- 하방요인(downside risk):

- ①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disorderly adjustment of financial market conditions)
- ②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 등 보호무역주의 증가
- ③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 ④ 자본축적 규모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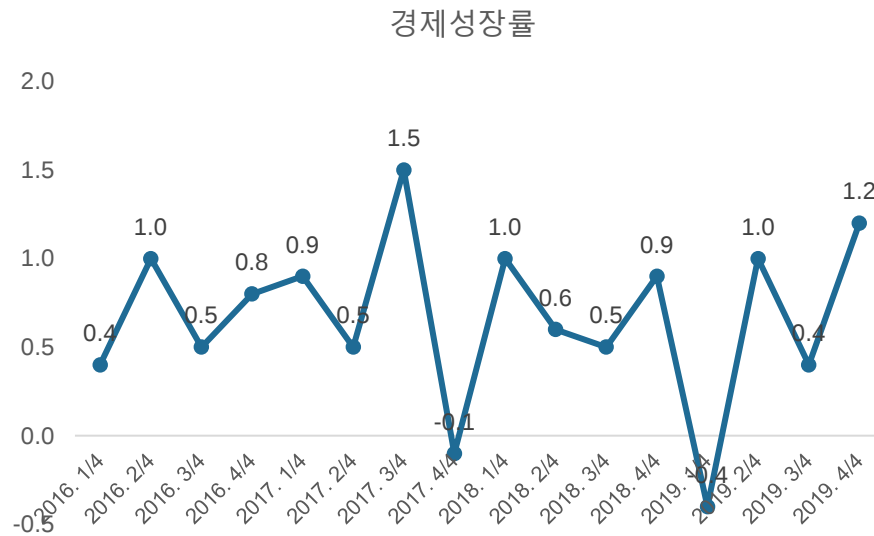
■ 세계은행은 '18년 세계경제 리스크로 상방요인은 예상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하방 요인으로선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증가,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자본축적 규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제시함

외부환경분석_경제환경분석_코로나 이전의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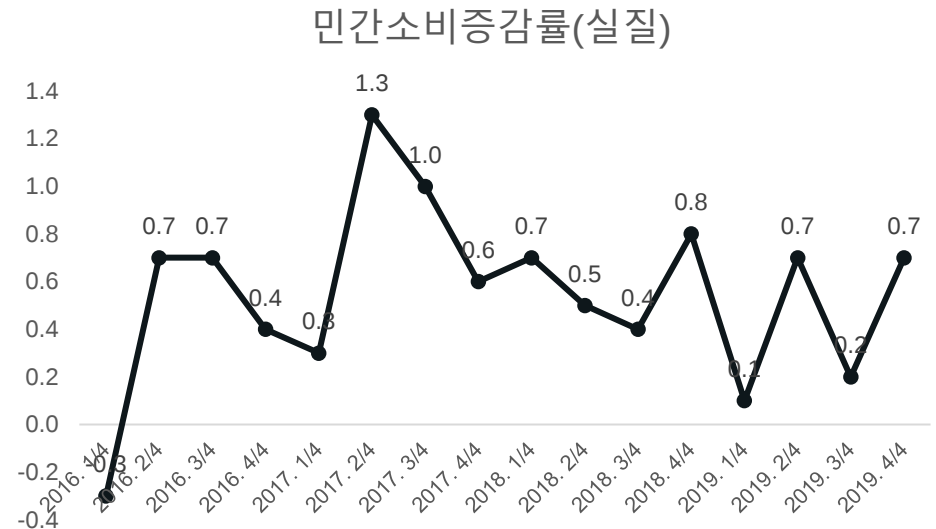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0년 COVID-19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국내 민간소비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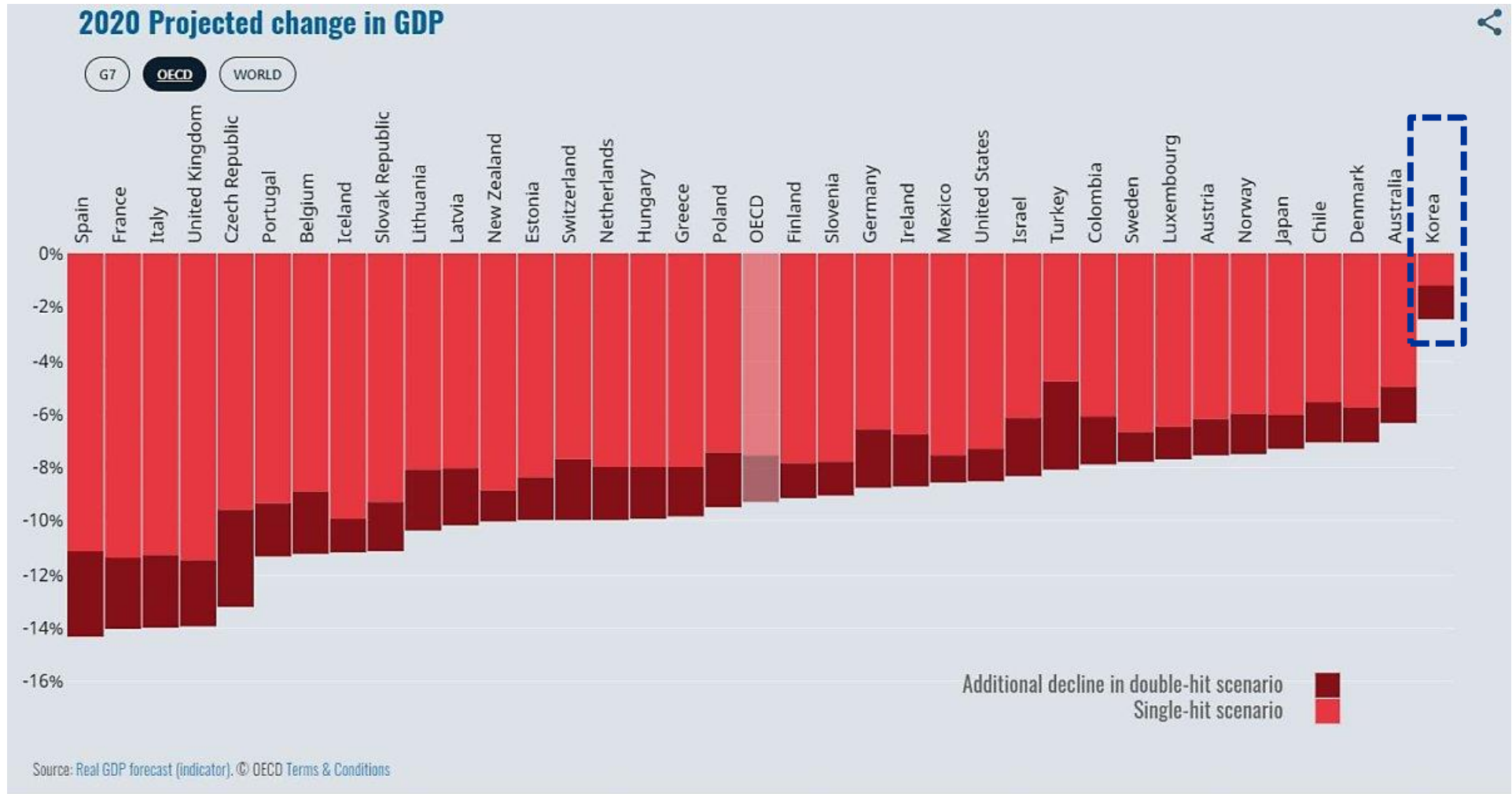
- 국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및 선진국 재정긴축 기조로 분기 별 평균 1% 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선진국 및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재정위기 장기화로 국내 경제여건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향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민간소비증가율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같이 분기 별 평균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향후, 국제 및 국내 경제성장 및 여건에 따른 소비 증감의 원인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됨

※ Source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2020년 1분기 기준)

외부환경분석_경제환경분석_코로나 이후의 경제성장률 추정

COVID-19에 의한 경제충격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 기존 성장률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도 예측되고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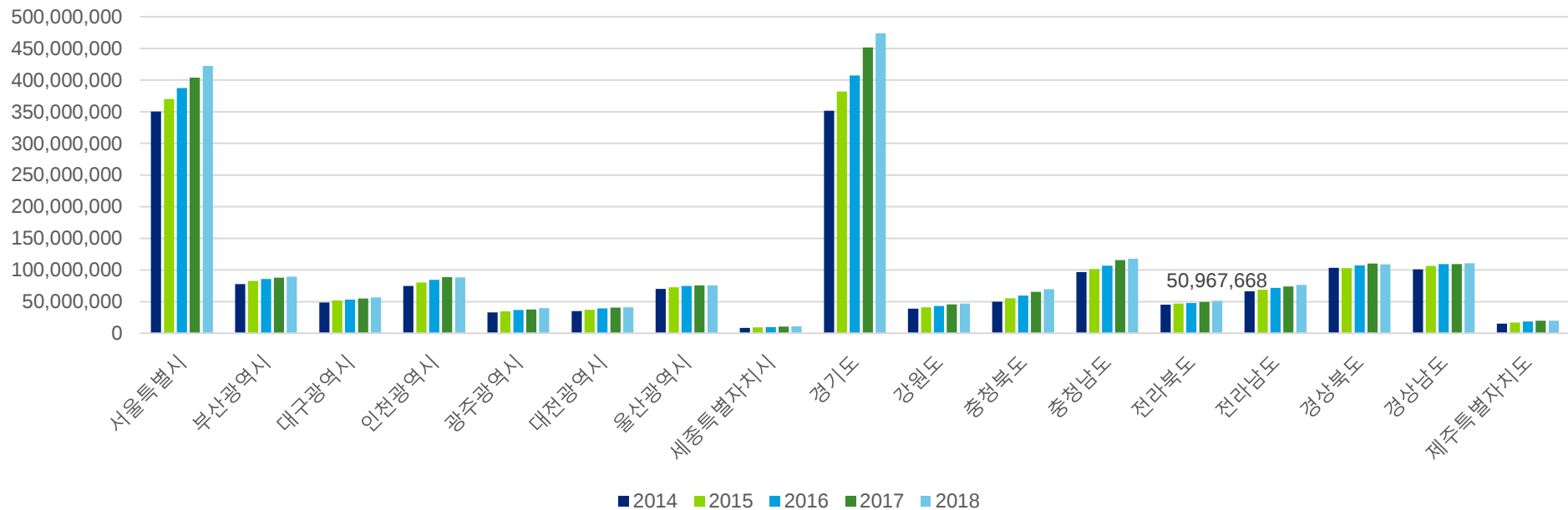


외부환경분석_경제환경분석_광역자치단체별 GRDP 시계열분석

광역자치단체별 GRDP(지역내 총생산)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라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GRDP(2014~2018년)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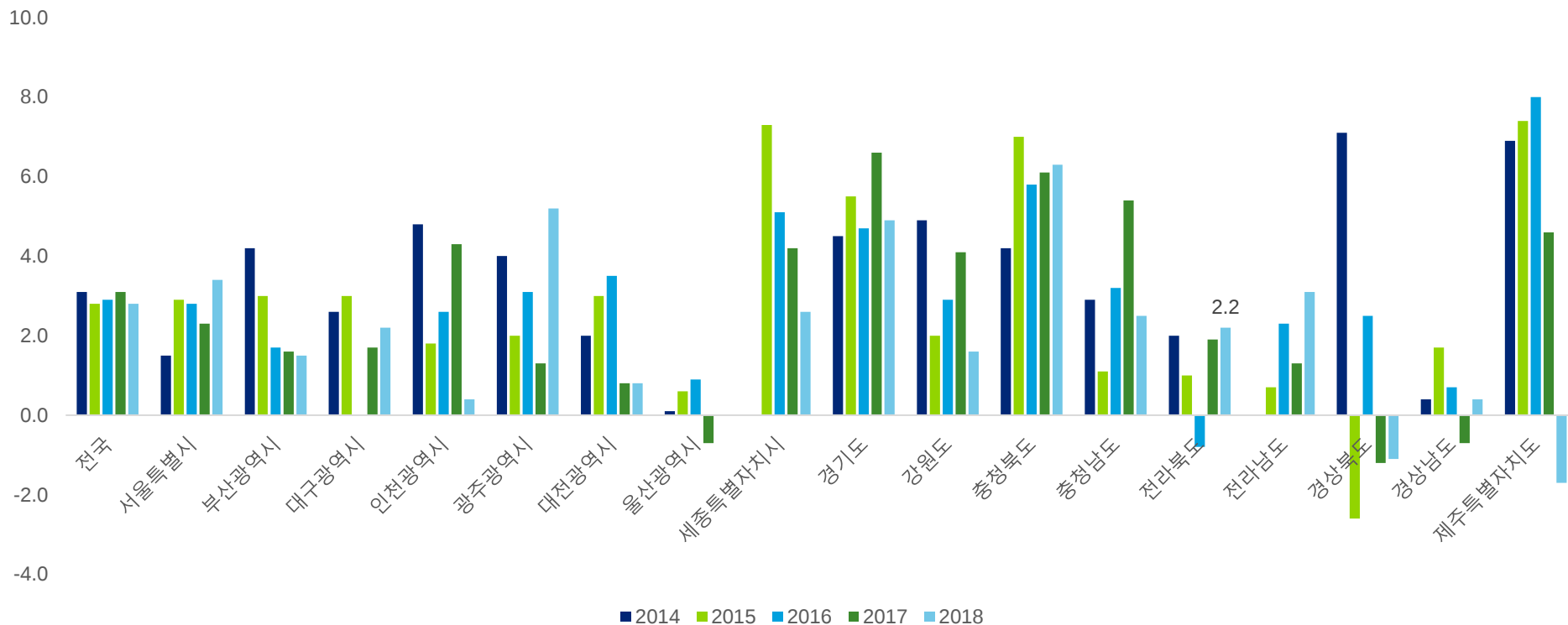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라북도	45,151,703	47,018,028	47,879,046	49,348,477	50,967,668
경기도	351,734,517	381,978,306	407,437,529	451,426,420	473,845,098
전라남도	66,215,322	68,878,376	71,615,402	73,732,402	76,465,519

외부환경분석_경제환경분석_광역자치단체별 경제성장률 시계열분석

광역자치단체별 경제성장률을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비교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0.8을 기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등의 경우 (-)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2014~2018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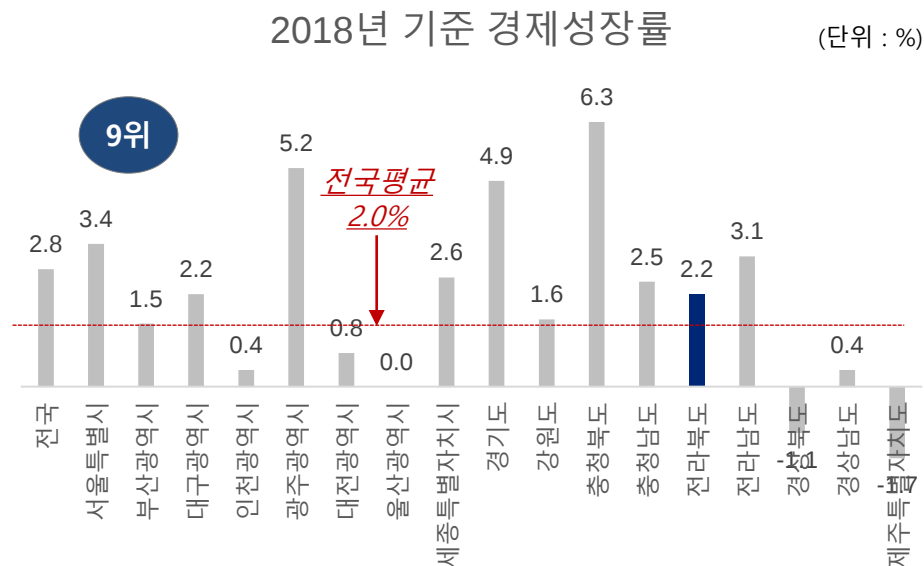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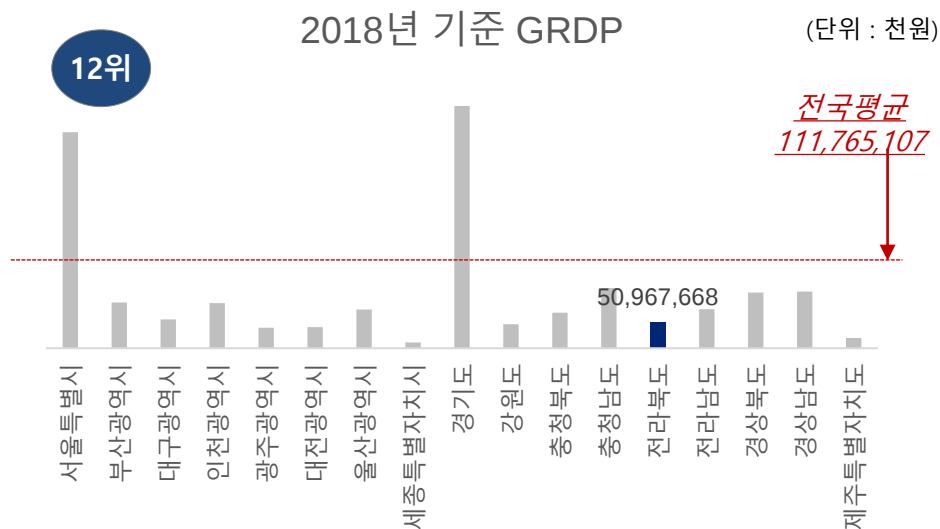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3.1	2.8	2.9	3.1	2.8
전라북도	2.0	1.0	-0.8	1.9	2.2

외부환경분석_경제환경분석_전라북도 경제지표 분석 결과

GRDP와 경제성장률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GRDP는 12위, 경제성장률은 9위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경제지표



- 전국 시도별 1인당 GRDP 현황분석 결과, 전라북도는 12위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 보다 낮은 50,967,668백만원 수준임
- NOTE : GRDP: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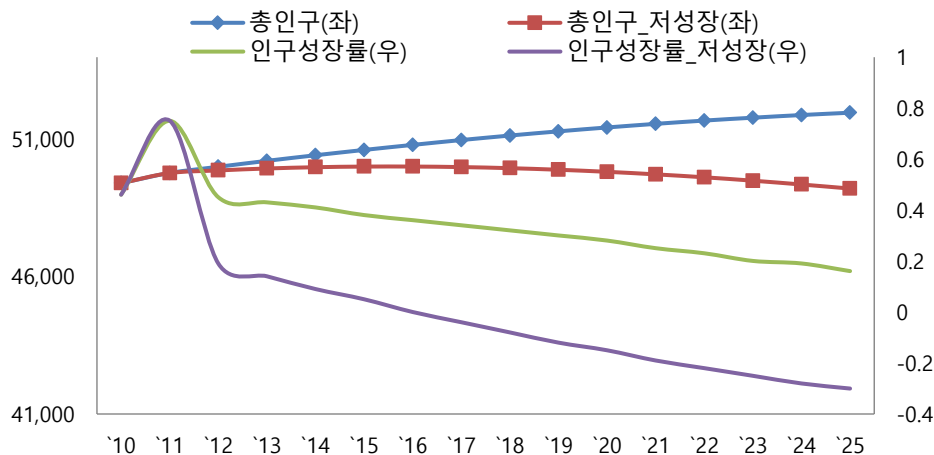
- 지역별 경제성장률 분석결과 전라북도는 전국평균 2.0%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외부환경분석_사회문화분석_인구구조 변화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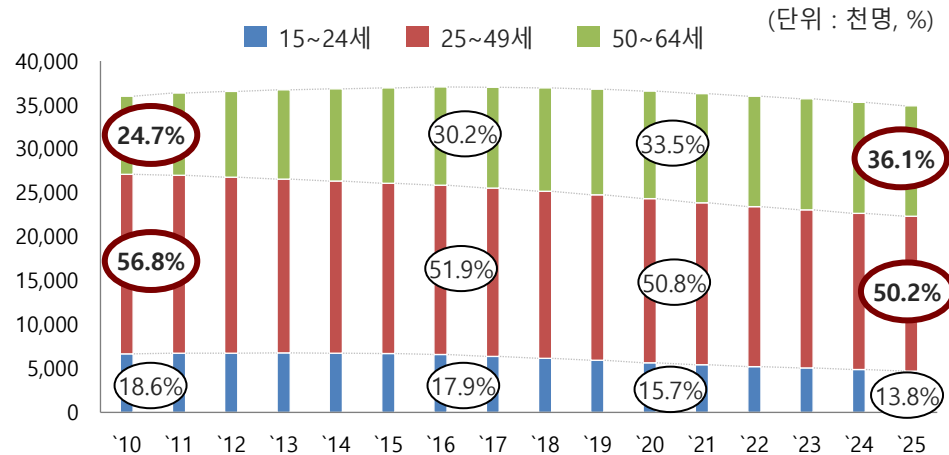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는 총인구 감소, 인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인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인구성장률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율



- 인구 저성장 시 '16년을 정점으로 인구 성장이 둔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주택수요 감소 등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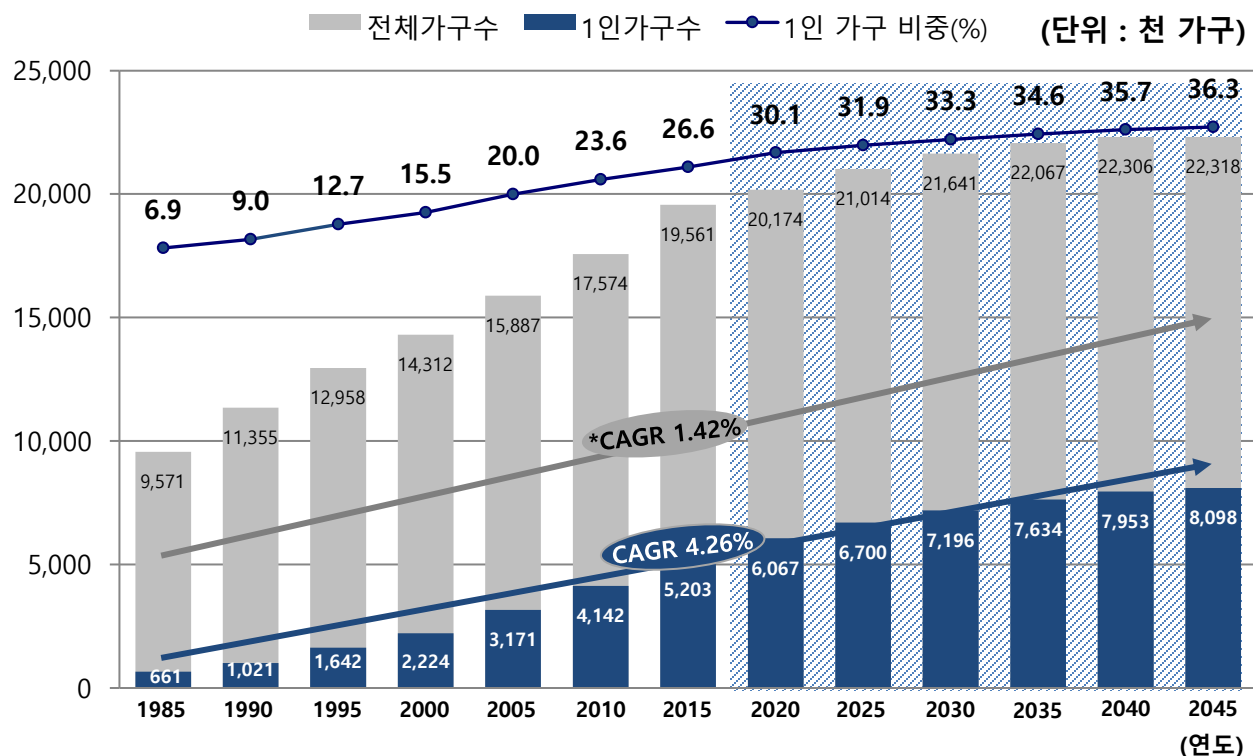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으로 주택가격하락 및 경기침체, 인구고령화로 복지수요 증대와 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및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

외부환경분석_사회문화분석_1인가구 증가추이

최근 우리나라는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입니다.

향후 1인 가구 증가 추이(1985~2045년)

1인 가구 증가 추이



- 1인 가구 증가폭(4.26%)이 전체 가구 증가폭(1.42%)을 상회하여 주택 공급 시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함
- 가족 구성 형태 변화에 따라 기존에 공급되었던 주택의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Source : 인구총조사(1985-2015), 장래가구추계 통계청(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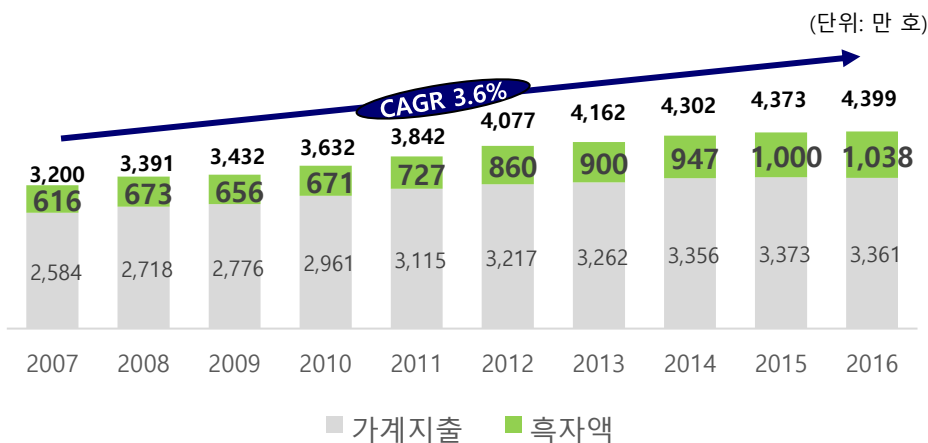
*CAGR : 연평균 성장률

외부환경분석_사회문화분석_가계소득수준의 실질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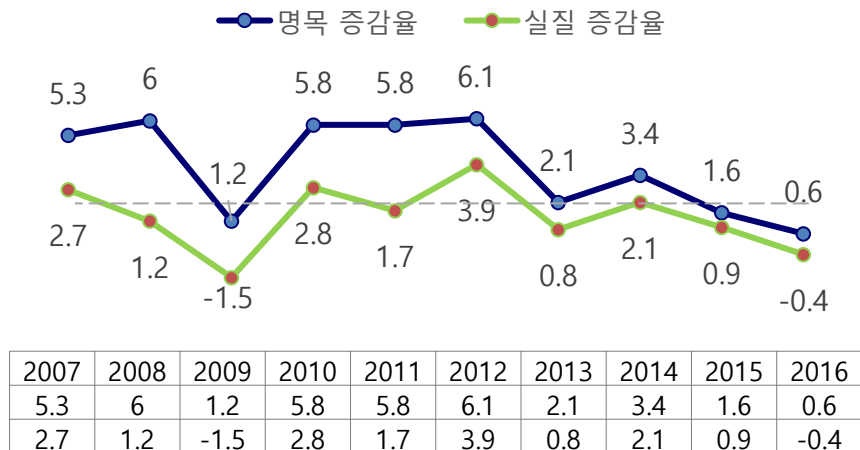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명목 및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수준 및 주거 안정감 저하

최근 10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동향



명목 및 실질 월평균 가구소득 증감율(전년대비)



-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39만 9천원 수준으로 10년 전 인 2007년 320만원에 비해 119만 9천원 증가하였음
- 월평균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흑자액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

- 가구 명목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09년을 제외하고 매년 5~6%대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13년 2.1%로 떨어진 이후 '16년에는 전년대비 0.6% 증가로 그침
- 가구 실질소득 증가율도 '13년 이후 점차 낮아지며 '16년에는 '09년 이후 7년 만의 감소 추세)

※ Source :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국토연구원(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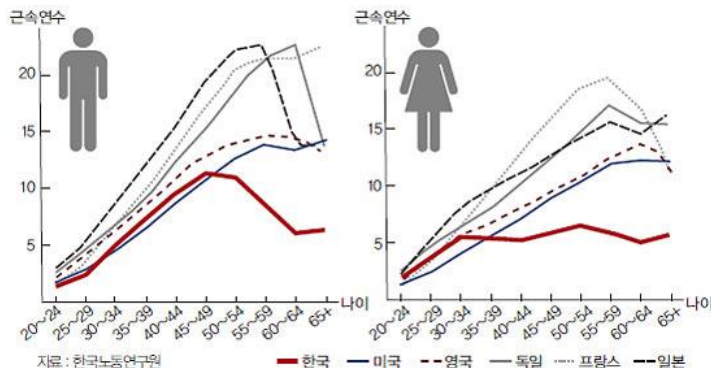
외부환경분석_사회문화분석_국가 고용안정성 지수

국가 고용안정성 지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고용을 창출하는 역량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고용안정성 지수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네덜란드	5.18	19	에스토니아	9.63
2	룩셈부르크	5.56	20	러시아	10.23
3	그리스	5.74	20	뉴질랜드	10.23
4	슬로바키아	6.14	20	일본	10.23
5	체코	6.38	20	이스라엘	10.23
6	벨기에	6.46	20	칠레	10.23
7	이탈리아	6.55	25	스페인	10.77
8	슬로베니아	6.85	26	캐나다	11.26
9	영국	6.89	27	미국	11.38
10	아일랜드	7.13	28	호주	11.70
11	포르투갈	7.35	29	덴마크	12.36
12	노르웨이	7.72	30	아이슬란드	12.73
12	헝가리	7.72	31	스웨덴	13.17
14	독일	7.79	32	핀란드	13.42
15	스위스	8.30	33	브라질	14.03
16	오스트리아	8.80	34	멕시코	18.02
17	프랑스	9.02	35	터키	22.67
18	폴란드	9.07	36	한국	25.80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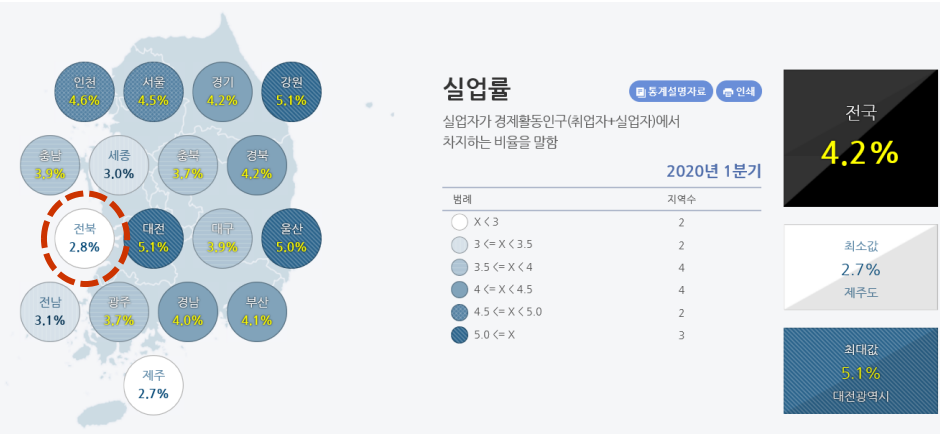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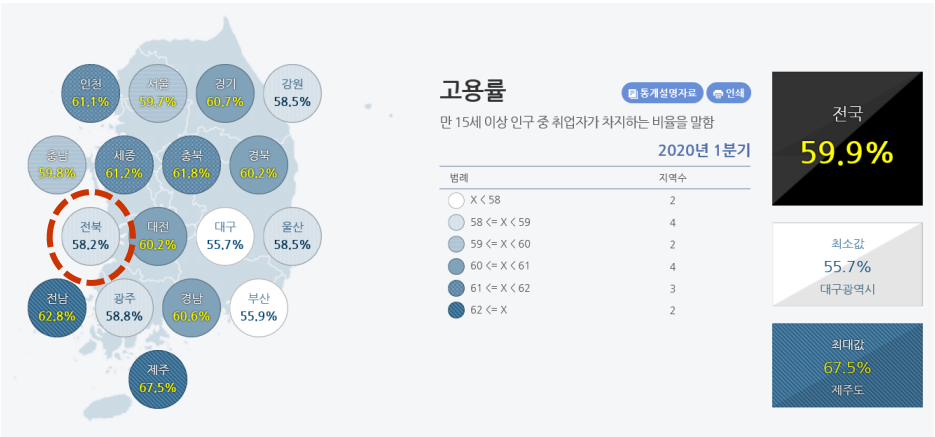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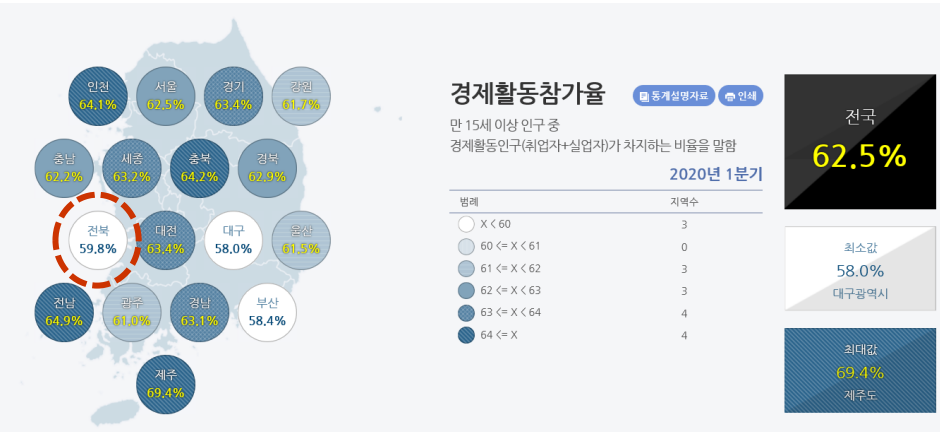


중점사안

-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연령대별 근속연수 그래프가 남녀 모두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남자 근로자의 경우 20대부터 40대까지는 근속연수가 미국과 대등하거나 약간 앞서는 수준이지만 49세를 넘기며 근속연수가 미국보다도 급격히 떨어졌으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는 45세에서 49세의 기간에 10년을 약간 넘긴 지점에서 정점을 찍은 후 한 자릿수로 떨어짐.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 연령에 걸쳐 평균근속연수가 10년이 넘지 못하고 있어 경력단절이 심화되어지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남자 근로자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외부환경분석_사회문화분석_도민역량강화 필요성

전라북도는 적은 경제활동인구로 인해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절대적 유입증가 필요성과, 도민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동시에 강조될 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는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은 경제활동 참가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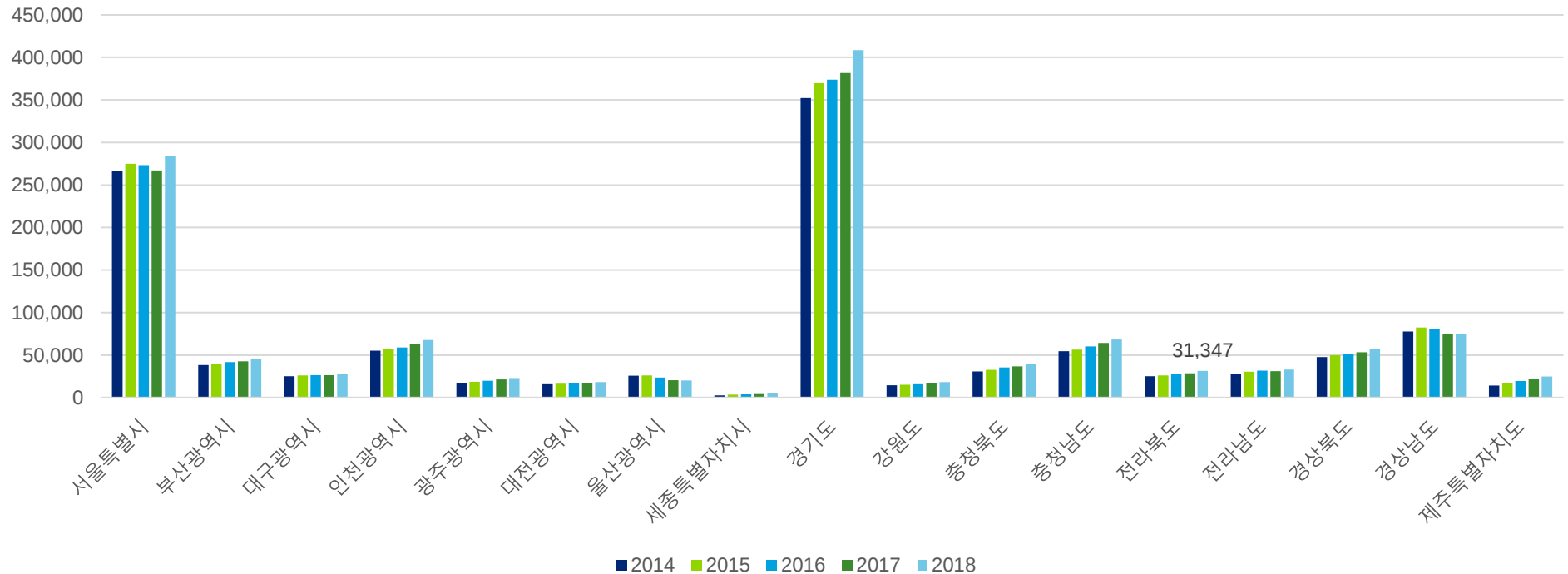
전라북도는 적은 경제활동인구,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고용률로 인해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인구의 증가 또는 도민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외부환경분석_사회문화분석_등록외국인수

국내 등록 외국인 수는 전국적으로 약 124만여명이며, 이중 전라북도에는 약 31천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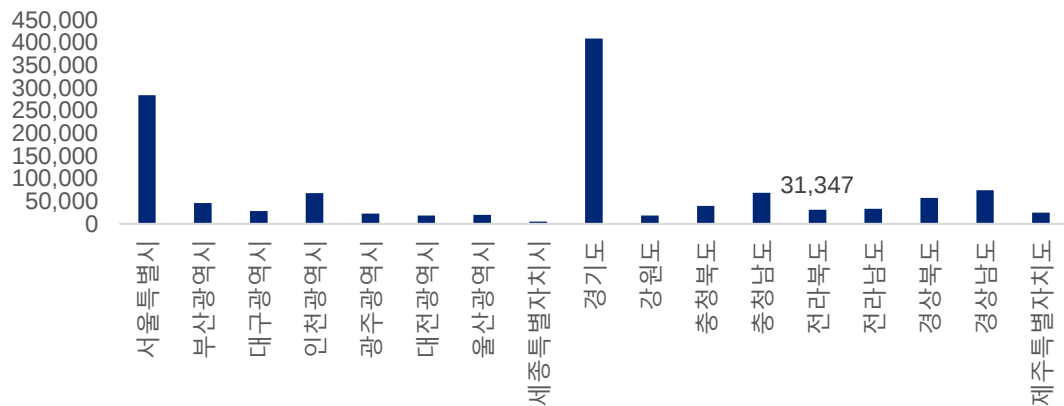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전라북도	25,086	26,194	27,320	28,588	31,347
전라남도	28,254	30,566	31,750	31,221	33,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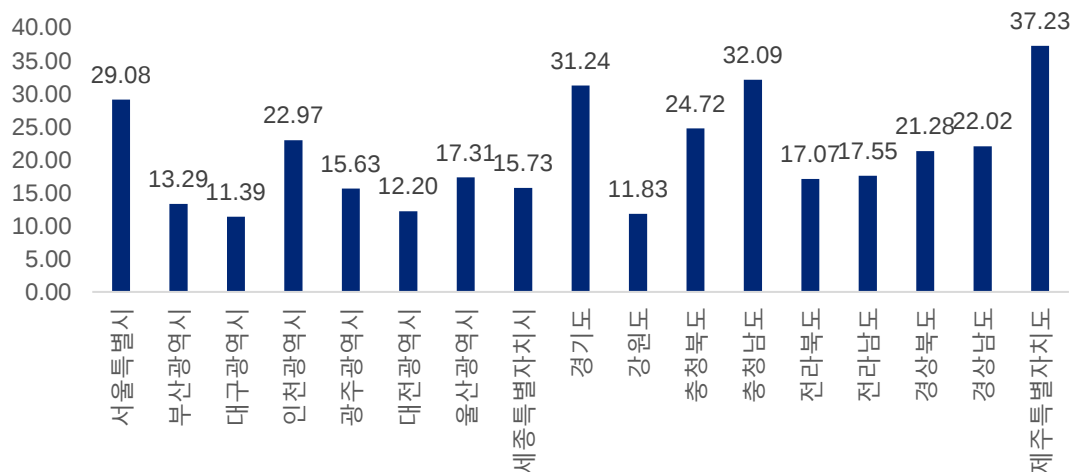
외부환경분석_사회문화분석_등록외국인수 분석

지역별 등록외국인수를 보면 전라북도는 약 31천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등록되어있지 않으나,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는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인구대비 등록외국인수는 많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역별 등록외국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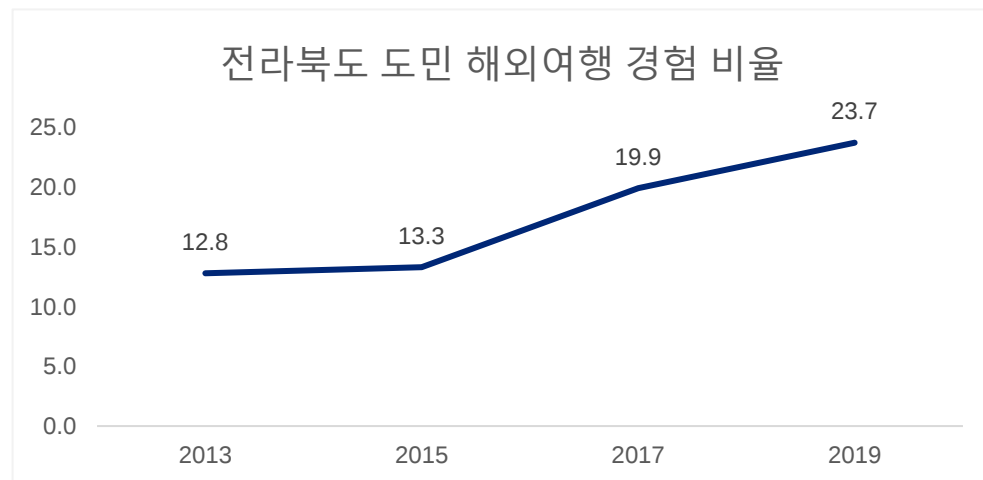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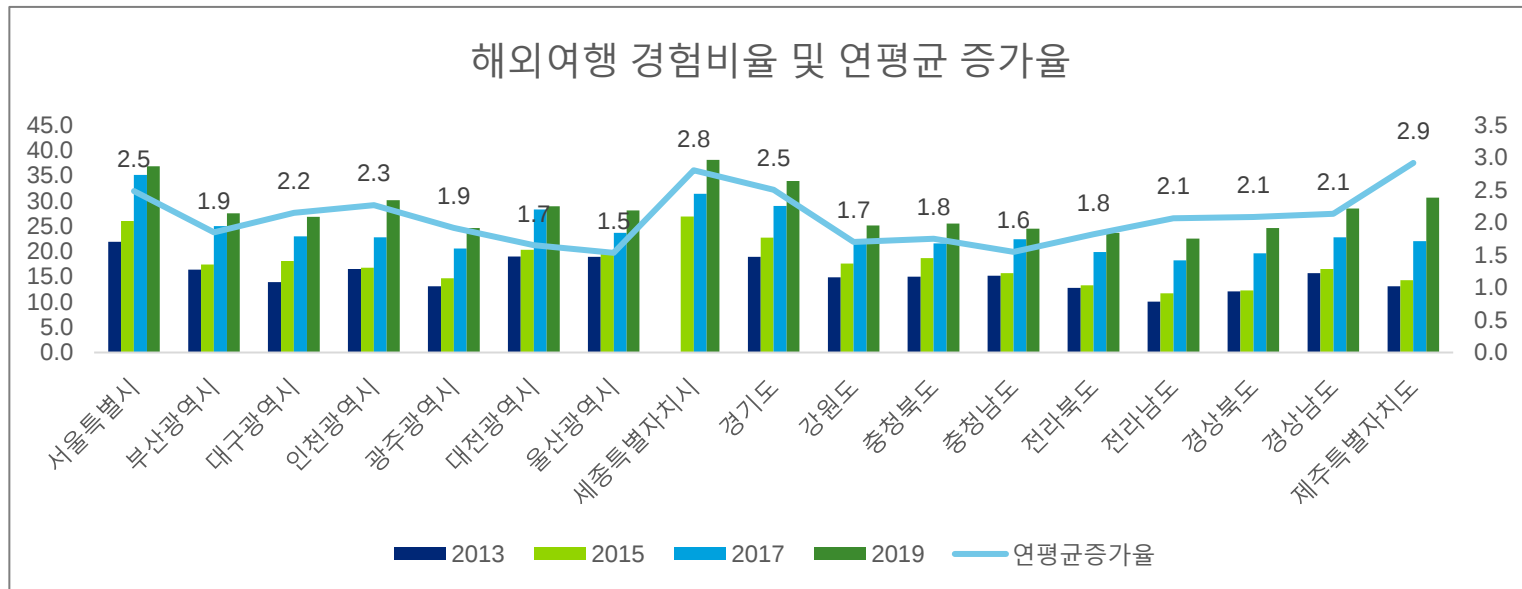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 전라북도에 등록된 외국인수는 총 31,347명 (2018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수가 있음
-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등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수는 전라북도보다 많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압도적인 숫자가 등록되어 있음
- 반면, 인구 천명당 등록 외국인수는 전라북도의 경우 17.0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이, 도민 대비 등록 외국인수가 많음에 따라, 도민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소통역량 강화, 외국인과의 함께 사는 문화 등에 대한 친밀도 등의 제고가 필요함

외부환경분석_사회문화분석_해외여행 경험비율과 연평균 증가율 분석

지역별 국민의 해외여행 경험비율과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해외여행 경험비율,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라북도 도민의 해외여행 경험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23.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해외여행경험 비율과 증가율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19년 해외여행경험 비율을 기준으로 2020년 매우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었으나, COVID-19로 인해 당분간 해외여행의 추세와 비율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외부환경분석_기술환경분석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포럼의 주요 화두로 주목 받았으며, 물리적·디지털적·생물학적 기술의 융합을 통한 속도, 범위, 시스템 영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개요

정 의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 <다보스포럼, 2016>
주요 변화동인	- 사회·경제적 측면 - 업무환경 및 방식의 변화 - 신흥시장에서의 중산층 등장 - 기후변화 등 - 과학기술적 측면 - 모바일 인터넷 - 클라우드 기술 -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IOT) - 인공지능 등
산업 발전과정	The diagram shows a horizontal timeline with four stages of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stacked bars of increasing width: 1차 산업혁명 (1784년): 수력,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식 생산설비 2차 산업혁명 (1870년): 컨베이어 벨트, 전기동력에 의한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 (1969년): 전자기기, IT 통한 자동화 4차 산업혁명 (현재): 사이버물리시스템

주요 특징

속 도 (Velocity)	범 위 (Scope)	시스템 영향 (System Impact)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획기적 기술 진보 및 융합, 발전	각국의 전산업 분야에서 파괴적 기술에 의한 대대적인 재편 예상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큰 변화 예상

<WEF 10대 신기술>

물리학 기술	나노 센서와 나노 사물인터넷
	차세대 전지
	블록체인
디지털 기술	2D소재
	무인차량
	칩 위의 장기
생물학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열린 인공지능 생태계
	광유전학
	시스템 대사공학

외부환경분석_기술환경분석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미래 한국사회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신뢰향상을 위한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초연결사회’, ‘근로·여가의 균형’, ‘건강·안전’ 등 3개의 분야로 그룹핑하여 선정하였습니다.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결과

미래트렌드	유망기술명	정 의
초연결사회 신뢰기반	빅데이터 기반 사기방지기술	• 다양한 빅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기타 통계기법을 더한 패턴 인식 작업 등을 통해 이상거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탐지하여 사기행위를 예방·방지 또는 사후 조치하는 기술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보안기술	•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한 거래를 함께 보장하는 금융거래 기술
	IoT 보안	• 사물인터넷(IoT)을 구성하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플랫폼의 보안위협 및 다양한 침해 사고를 예방·대응함으로써 안전한 IoT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기술
근로와 여가의 균형	사물정보기술	•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산(수집)된 원시 정보를 가공·처리하여 고부가가치의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딥러닝 기반 디지털 어시스턴트	• 사람의 인지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컴퓨터가 방대한 양의 관련 데이터를 학습하여 대신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
	여가용 가상현실 기술	• ICT를 기반으로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환경과 상황을 구현하고 여가활동 시 느낄 수 있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실제와 같이 재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기술
건강하고 안전한 삶	정신건강 진단·치료 기술	•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과 정신병리 과정을 반영하는 생리적, 행동적 신호 변화를 다양한 생체신호 센서 모듈, 데이터 전송 통신모듈 및 정신건강 증상과의 연관성 분석 및 질환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증상 악화를 예측하고 이를 조절, 예방, 조기 치료하는 기술
	소셜로봇(공감로봇기술)	•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인간의 정신적·물리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주는 기계 및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예측/경고시스템	• 질병의 전파과정, 감염환자, 인구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의 지역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알려주는 기술
	시스템 기반 미세먼지 대응 기술	•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측정, 분류, 포집, 정화, 예측, 감시하는 기술

※ Source : 2016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외부환경분석_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 예측

코로나 이후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전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다”이며, 이는 여러 국가간의 교류가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 어려우며, 국제교류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환경예측

- COVID-19 이후 세계경제환경, 국제교류환경, 사회 운영체계, 개인적 생활환경은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세계경제환경은 대부분의 국가가 역성장을 하고, 그중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로 예상되고 있으며,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후 2021년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
- 코로나 발생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상호 국가간 왕래를 제한하고, 관광 및 사업인력간의 교류, 외교적 교류도 대부분 단절된 상태로 화상회의를 통한 국가간 교류와 코로나 대비 경험과 노하우의 교류 등을 추진
- 일부 국가의 경우 관광객을 수용하고, 코로나가 극복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국가에 한해 통제를 해제하는 단계를 밟고 있으나, 제2차 유행 등으로 인해 확대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0년 예정된 대부분의 국제행사 등의 이벤트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
- 개인적인 생활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특히, 해외여행 또는 사업목적의 출장이후 14일간의 격리 등으로 인해 가급적 국내 여행과 교류로 변화하고 있음
-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후 해외여행 및 국제교류의 정상화에 대한 예측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음

- 코로나 이후 국가, 사회, 개인 생활 환경변화로 인해 전북국제교류센터의 역할과 기능 수행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국제교류와 같은 수준의 국제교류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향후 최소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단위의 교류는 일정수준 회복된다고 예측되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거나, 전북국제교류센터 등의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문서와 화상통화 등을 통한 국제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문서작성, 화상통화 시스템 및 Native 수준의 언어능통자 등은 기관의 국제교류 사업 추진의 필수요소임)
- 도내 글로벌 마인드 양성 및 외국인 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그 대상과 사업의 규모는 확대에 한계가 존재함
- 코로나 이후 당분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세심한 네트워크 관리체계, 지속적인 교류방안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고민과 접근 필요

전북국제교류센터 외부환경분석결과 종합입니다.

외부환경분석 주요 사항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당당한 외교와 국제적 공신력과 신뢰향상으로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의 강력한 자원 확보 ▪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서 민간부분,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의 인프라역할, 공공외교 내용 및 수행과정상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제시 ▪ 전북도는 공공외교 강화와 함께 우호관계 국가 및 지역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13개국 20개 지역으로 확대 목표) ▪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목표로서 지역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상호 윈윈구조 구축 필요 ▪ 전북은 2022년과 23년 대형 국제행사 추진에 따른 홍보와 추진체계 구축 필요
경제	▪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추세로 전환하는 중이었음 ▪ 전라북도의 경우 GRDP, 경제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등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됨 ▪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세계 언론 및 국제기구 등에서 평가
사회문화	▪ 인구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30년 고령화율 24%) ▪ 전북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 ▪ 코로나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기술변화	▪ Un-Tact 시대와 원격시대, 국제교류의 급격한 저하 등으로 인해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4차산업혁명과 AI 등의 급격한 기술발전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이후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생활방식의 변화 필요

내부현황분석_Framework

전북국제교류센터 내부 현황분석은 센터 Identity 분석과 내부현황분석 및 벤치마킹, 조직문화분석의 순서로 추진하였습니다.

1

센터 Identity 분석

- 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개념적 진단과 문제점 도출
- 센터 경영체계 진단 및 개선에 대한 종합적 의미 분석

2

내부 현황분석 및 벤치마킹

- 센터 경영체계 구성요소별 현황분석
 - 비전 및 전략체계 분석
 - 조직구조 현황분석
 - 사업구조 및 현황 분석
 - 인사제도 및 CDP, 평가체계 현황분석
 - 재무, 홍보 등의 현황분석
- 센터 내부 현황 분석 결과 종합
- 유사사례 분석

3

조직문화진단

- 센터 구성원 대상 조직문화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조직문화 구성요소별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 제시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우선 개선대상과제 도출

내부현황분석_센터 Identity 재정립의 필요성

전북국제교류센터(이하 : 센터) Identity 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여, 센터의 Identity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하여 우선 정립하고 나가야 합니다. 센터는 수행하는 사업의 영역, 내용, 성과로 Identity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 Identity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과 문제제기

- 센터와 국제협력과의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 센터의 명칭을 재단으로 해야 Identity가 명확해진다
- 도청 및 도의회에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모호하게 인식한다
- 센터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Identity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등 Identity 관련 다양한 의견제시

왜? Identity에 대하여 고민하는가?
Identity는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Identity는 정의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센터의 위상 측면에서 고려

- 센터는 위상 측면에서 센터의 위상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센터에 대한 인식, 센터 임직원에 대한 인식, 센터의 사업에 대한 인식, 센터가 창출한 성과에 대한 인식 등이 임직원이 낮다고 체감하는 것에서 출발함
 - 센터의 위상은 누가, 어떻게 높일 수 있나를 생각하면, 센터 위상 측면의 Identity 고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 도 또는 도의회에서 센터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가? 센터의 위상은 어떻게 높아지는가?

센터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고려

- 센터의 임직원 중 일부는 도청, 도의회에서 센터가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제약한다고 인식
 -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센터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 센터가 추가로 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고려 필요
- 도청, 도의회, 도민이 센터에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 센터가 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과 하고싶은 기능과 역할 대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 필요?

다시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민하고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로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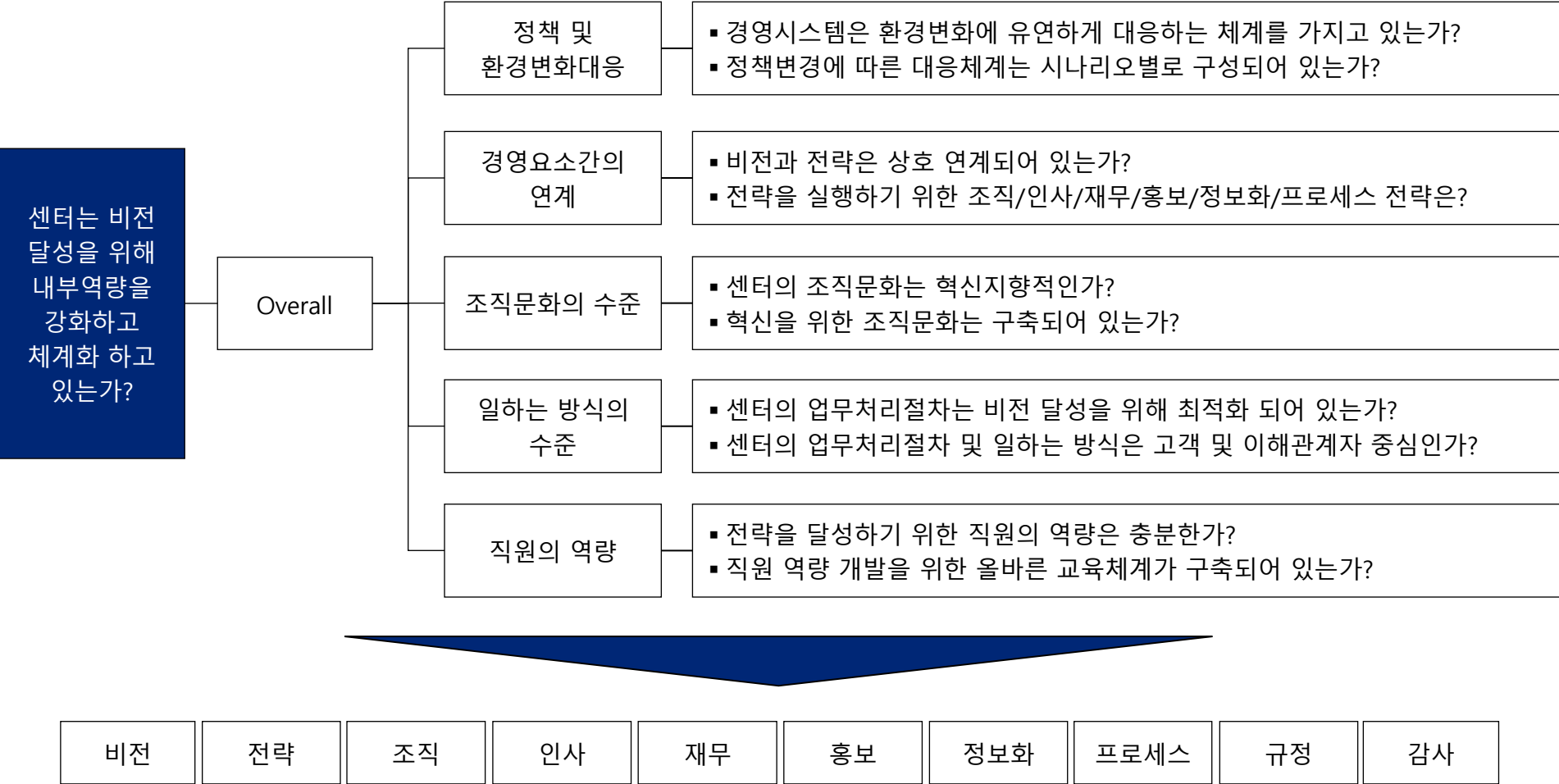
내부현황분석_센터의 Identity는?

센터의 Identity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현황과 문제 및 이슈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S-IS	문제 및 이슈
형태	전북도 산하기관, 재단법인	설립형태의 문제점 없음(재단법인으로 지속운영)
명칭	설립당시 재단으로 명칭 가능했으나, 센터로 명칭	센터 명칭은 재단, 또는 진흥원 등으로 개편 필요성
위상	- 도 : 도 추진사업과 목표 수행기관 요구 - 센터 : 다양한 사업추진, 내부문제, 위상 고민 도에선 모든일 못하게함, 우린 무엇을 하는 기관?	- 센터가 어떤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해야 하는가? - 도는 센터를 어떤 위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도록 해야 하는가?
규모	- 센터장 포함 13명의 정원(3팀) 2020년 예산 16억78백만원	- 팀이 필요한가? 팀장이 직급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 1개 팀을 추가하는 방안은?
주요기능	전북도를 대외/대내 외국인에게 홍보, 도민 글로벌 역량강화	- 현재 수행하는 사업과 수행기능이 맞나? - 센터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
사업대상	대외 네트워크(불명확), 도민(불명확)	-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 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은 뭐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내용	전북국제화진흥, 글로벌프론티어 전북, 전북매력알리기, 프렌들리 전북사업	-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성과	다수의 사업성과보고서가 있으나, 명확한 성과 인식 불가능	-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야 하는가? - 작지만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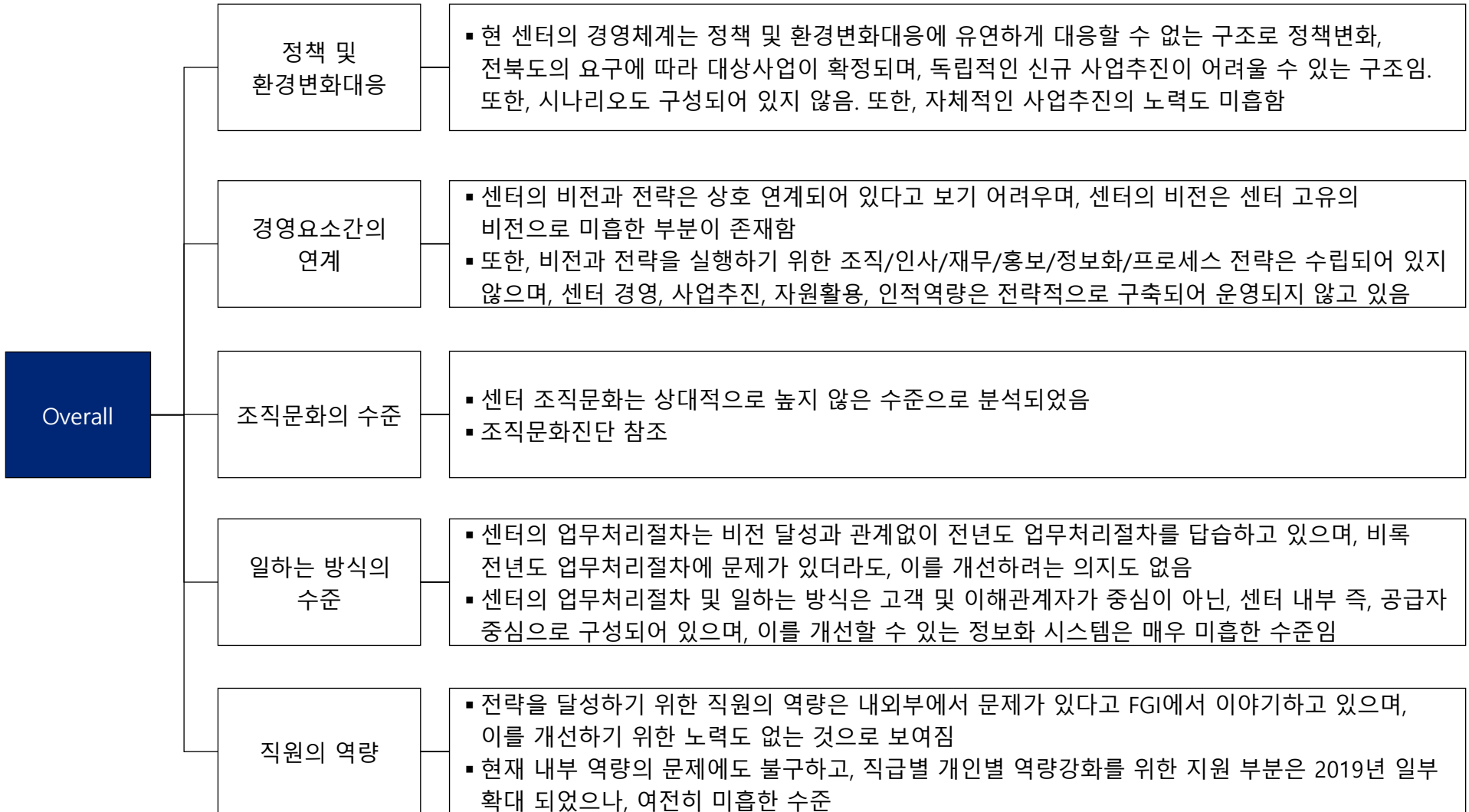
내부현황분석_Framework

전북국제교류센터 내부 현황분석은 센터의 비전, 전략, 조직, 인사, 재무 등 경영시스템 요소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내부현황분석_Ovar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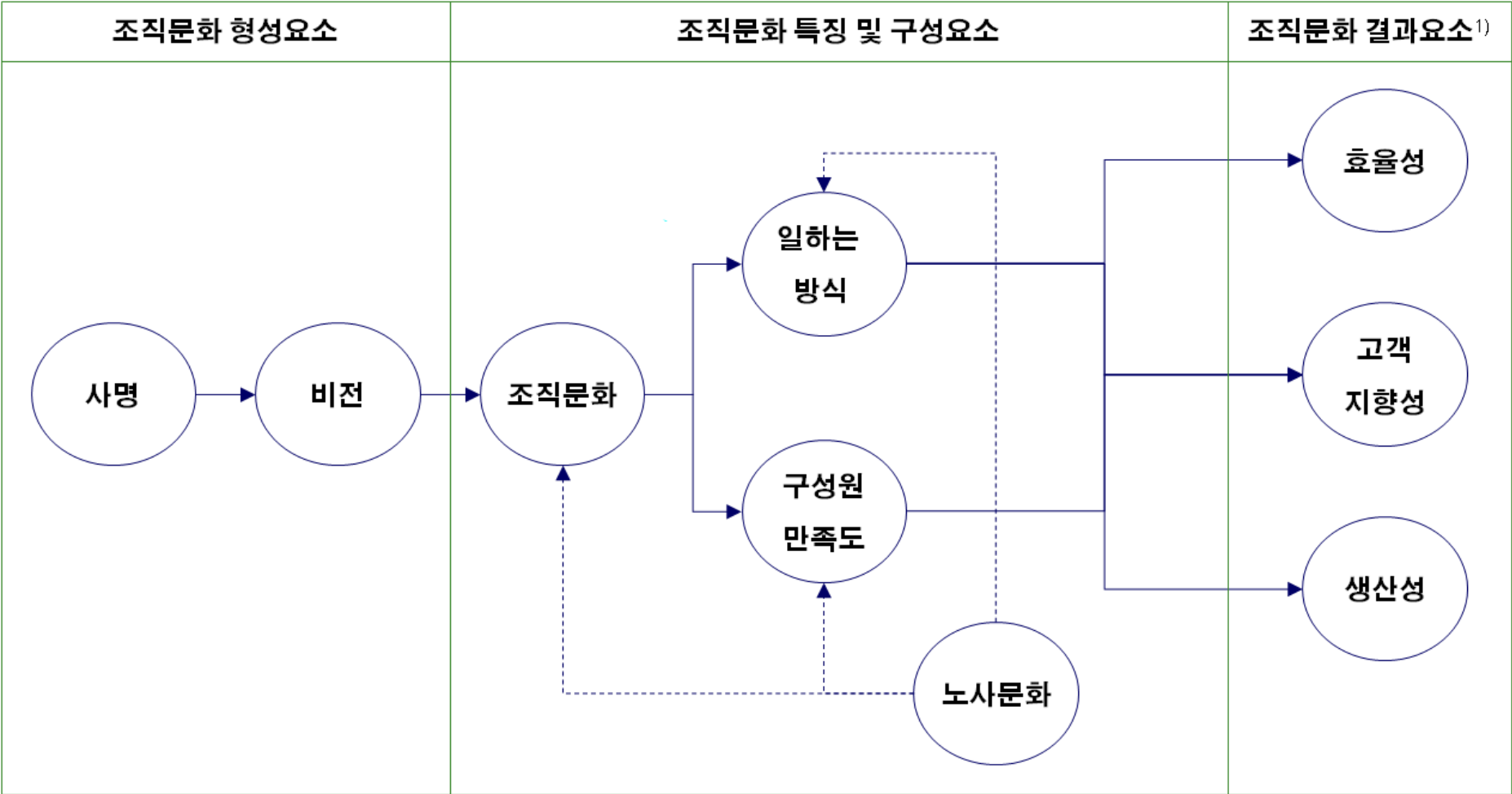
센터 내부 현황분석의 전반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 수준, 일하는 방식의 수준, 직원의 역량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조직문화 분석 개요

조직문화 분석모델

센터의 조직문화 분석하기 위한 전체 구조는 조직문화 형성요소와 조직문화 특징 및 구성요소, 조직문화의 결과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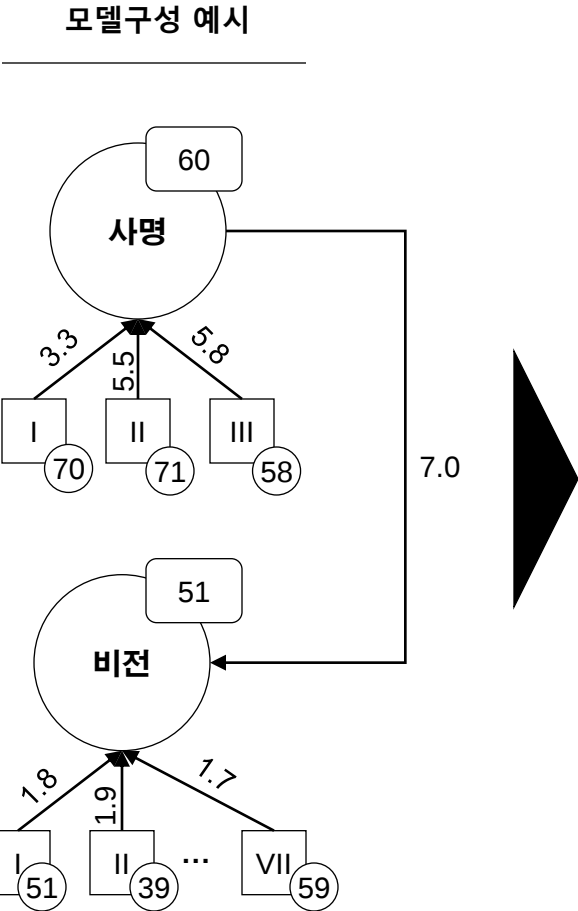


1) 조직문화 형성요소와 조직문화 특징 및 구성요소는 조직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며, 조직문화 결과요소는 개인별 업무 처리 수준을 측정한 것임

분석모델에 사용되는 개념 설명

조직문화 분석모델에 사용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 조직문화 분석모델



표시	용어 설명
	잠재변수(Latent Variable) - 직접적으로 설문을 하여 구하기 어려운 변수로, 추상적이거나, 정성적인 의미의 변수 - 여러 개의 관측변수를 통해 잠재변수의 수준파악이 가능
	관측변수 (Observed Variable)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응답자의 직접적인 반응을 획득하는 변수
	점수(Score) - 몇 개의 설문문항을 통해 구해지는 잠재변수의 점수(100점 만점) - 비율로 변환하여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음
	점수(Score) 설문문항을 통해 구해지는 관측변수의 점수(100점 만점)
7.0	영향도(Impact) - 후행변수(연결되어진 변수)에 미치는 영향정도로서 중요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7.0에 대한 해석: 선행변수가 10점이 올라갈 경우 후행변수가 7.0이 올라감

III. 전북국제교류센터 정체성 및 사업분야 검토

1. 전북국제교류센터 정체성 정립
2. 전북국제교류센터 사업분야 검토

JBCIA 정체성 정립_Framework

센터 역량 및 정체성 정립과 전환을 위한 접근은 현황분석과 개선방향성 도출,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미래 시나리오 분석과 구성을 추진하고 종합하는 단계로 추진하였습니다.

1

센터 역량 및 정체성 현황분석과 개선방향성 도출

- 공공외교, 전북도에서 현재 센터 역량과 정체성에 대한 분석
- 센터의 한계와 현재 문제점에 대한 분석
- 센터 내부 인터뷰와 자료분석을 통한 센터의 역량수준과 개선방향성
- 센터 정체성 현황분석 종합과 개선방향성

2

센터 역량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한 단계별 미래시나리오 분석

- 센터 역량과 정체성 현황분석 결과 도출된 개선방향성에 대한 점검
- 센터 정체성 정립 개선방향성을 기반으로 미래 시나리오 도출
- 센터 미래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단계별 전제조건 구성
- 단계별 전제조건 구성과 센터 역량강화방안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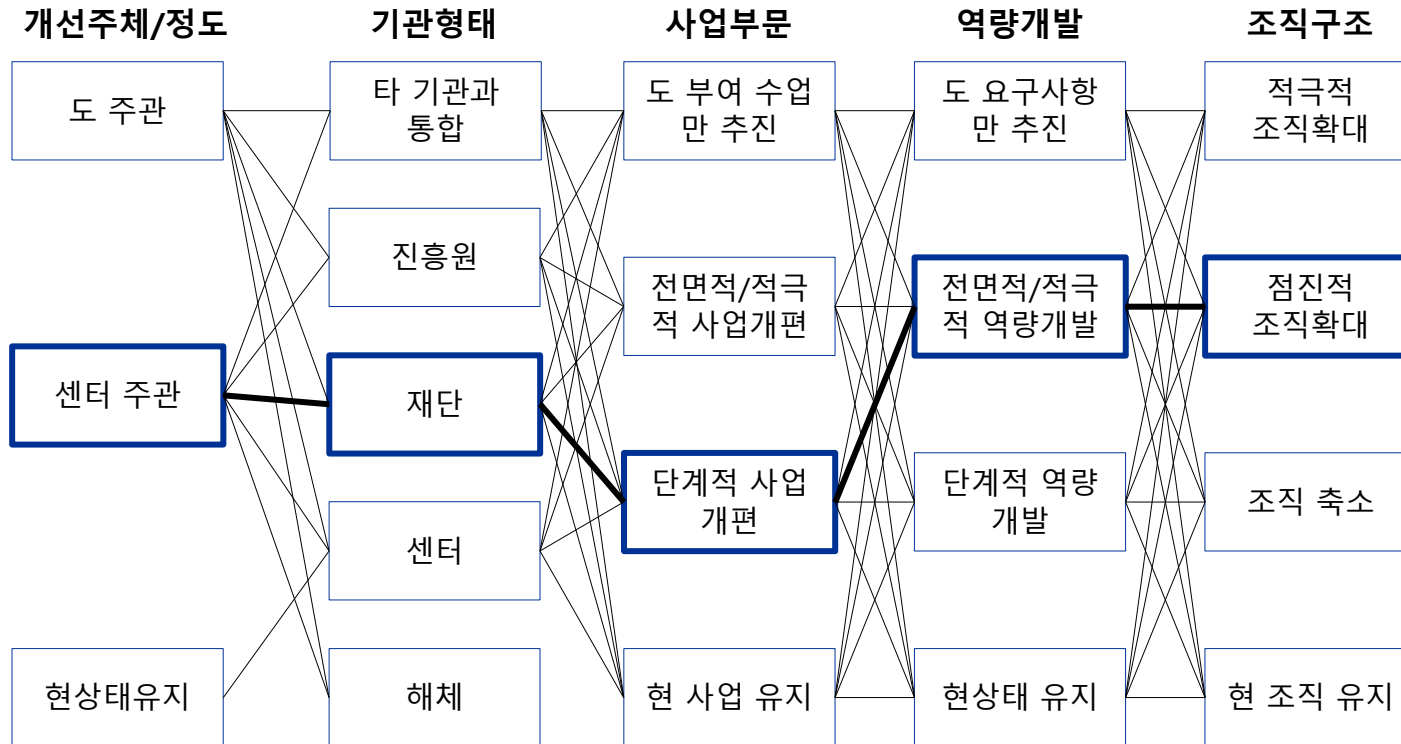
3

센터 역량 및 정체성 정립 분석 결과 종합과 제언

- 센터 역량과 정체성 정립 현황분석 결과 종합
- 센터 역량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한 단계별 미래 시나리오 종합

JBCIA 정체성 정립_센터 정체성 정립을 위한 미래 시나리오

센터의 미래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다수 존재하지만, 핵심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센터는 최적의 선택과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 센터 정체성 정립과 관련된 선택조건은 제시된 옵션이외에도 다수 존재함
- 센터의 선택과 추진에 따라 센터의 미래가 결정됨
- 실질적 개선, 실행되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
- 이와 관련한 추진사항(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은 중장기 전략에서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로 구축 필요

JBCIA 정체성 정립_센터 정체성 정립을 위한 미래 시나리오를 위한

사업분야 정립

센터의 미래 모습을 위해 반드시 기반으로 구축해야 하는 것은 수요의 네트워크 구축,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기업, 단체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센터의 정체성은 확립되고, 사업추진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요

5개 권역별 최소 5개 국가 (최소 25개국)	국가
각 국가별 대표적 3개 지역 (최소 75개 지역)	지역
- 지방정부(수도 이외의 지역중심) - 지방정부 산하 국제교류 기관 - 지역내 국제교류 단체 - 지역내 민간기업 협회(지역, 산업별, 한인) - 지역내 공공기관(분야별) - 지역내 국민/지역민 민간단체 (NGO, 협회, 소모임, 단체, 대표자 협의회 등)	대상



- 센터는 수요와 공급의 네트워크를 DB로 관리하고,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유지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함

공급

도내 산하기관	- 도내 산하기관장 - 도내 산하기관 분야별 임원
전문가	지역내 전문가 공공외교 클러스터
공급 기관	- 지역내 해외사업 가능 민간기업 - 지역내 해외교류 희망 공공단체 - 지역내 해외교류 희망 민간단체 - 지역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지역내 관광기관 및 기업 - 지역내 ODA 관련 기관 - 정부부처 및 지역외 국제교류기관, 대표적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 해외교류 희망 기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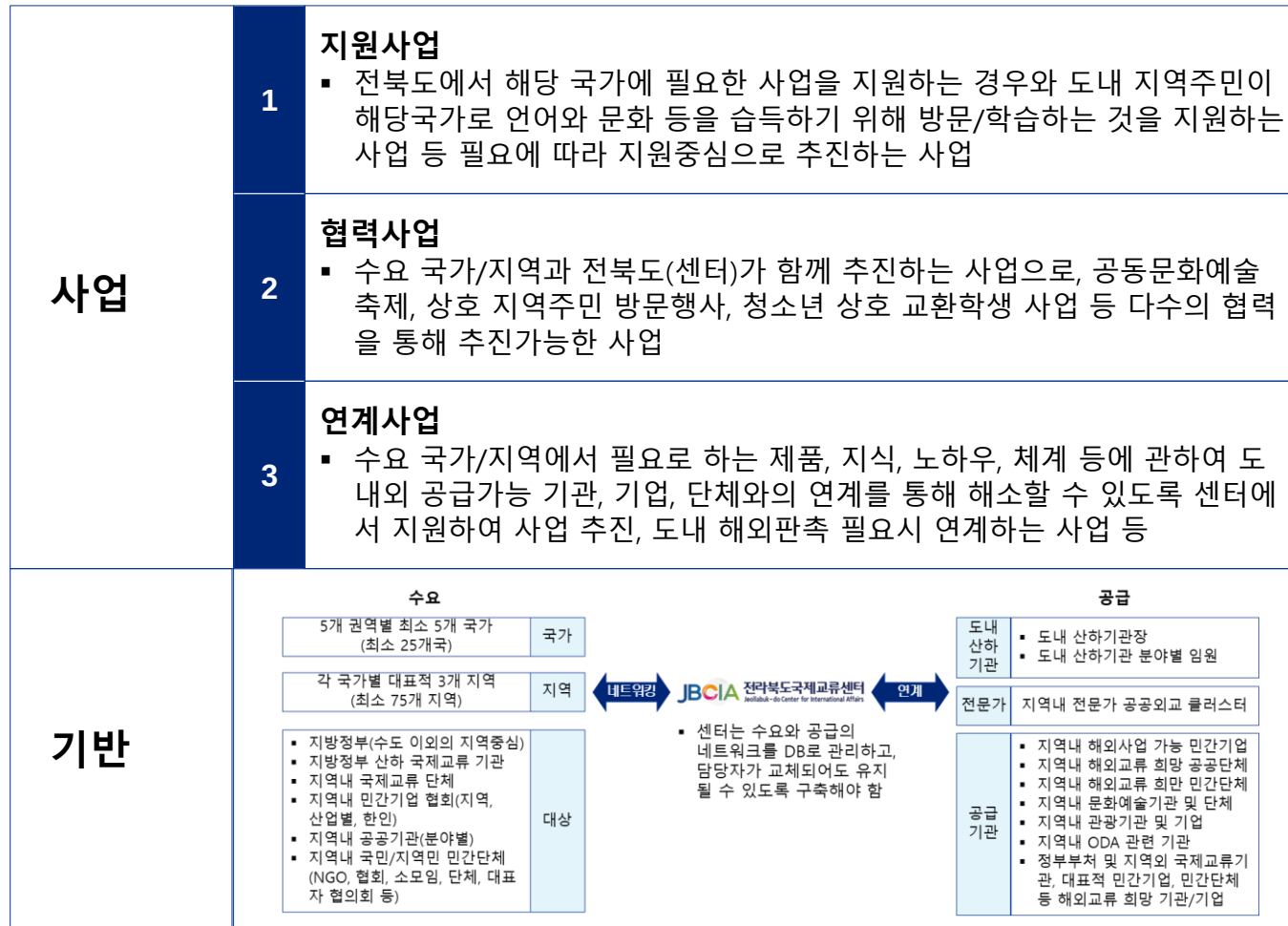
- 네트워킹의 의미는 단순한 연락처를 주고받고, MOU를 체결하는 단계가 아닌, 상호 긴밀한 연계, 친밀도를 유지하는 단계를 의미
- 휴가시 상호방문, 기관장의 상호방문, 관계자의 주기적(최소 1주일에 1회) 연락 등이 가능한 수준의 네트워킹을 의미
- 상호 기관 및 단체와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네트워킹

- 도내, 도외 기업 및 기관, 단체와의 연계는 해외 사업시 센터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준의 연계를 의미
- 참여 희망 기업, 기관, 단체의 신뢰성은 센터가 주관적으로 반드시 평가해야 하며, 해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칭, 연계, 콘소시엄 구성 등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JBCIA 정체성 정립_센터 정체성 정립을 위한 미래 시나리오를 위한

사업분야 정립

센터의 네트워크와 연계 기반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반구축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 다양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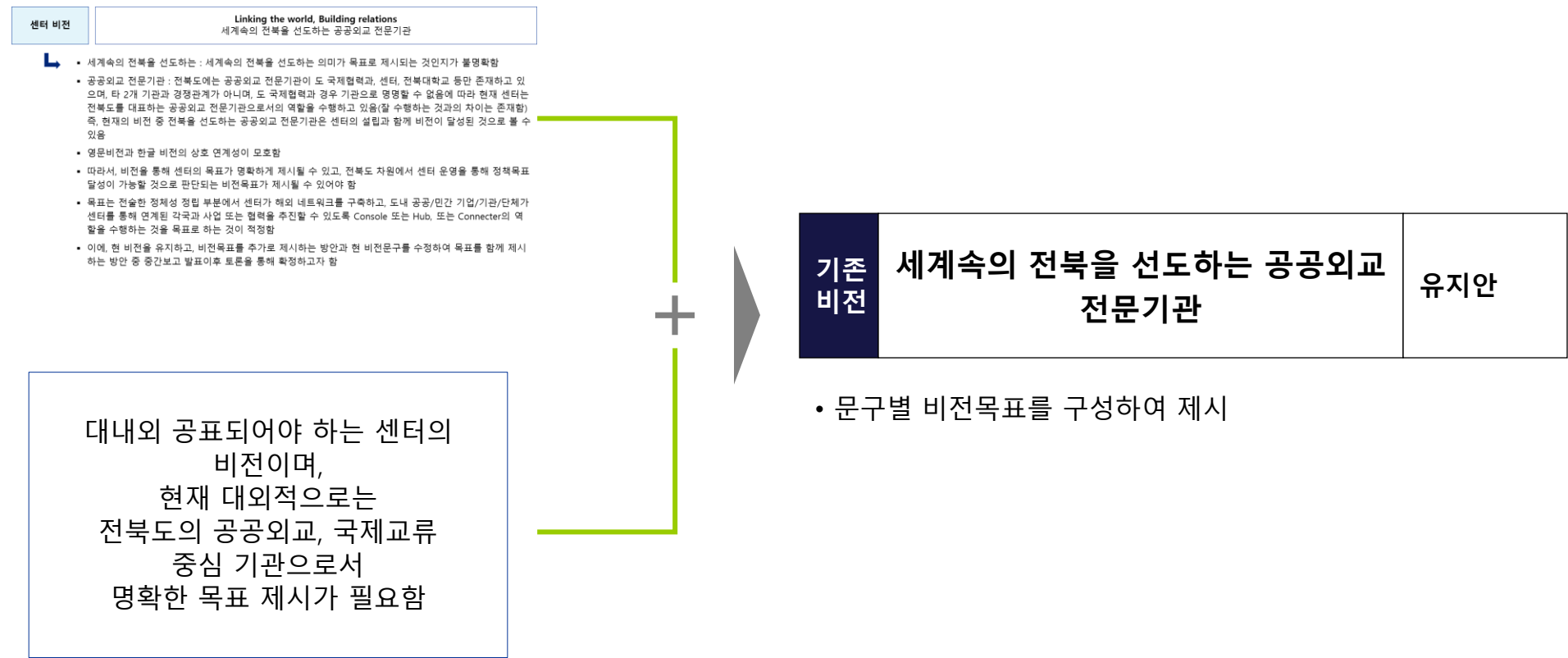


IV. 비전 및 중장기 전략체계 개선

1. 비전 점검 및 개선
2. 중장기 전략체계 개선

비전 점검 및 개선_비전 점검

센터의 비전은 기존 비전을 유지하고, 비전목표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비전, 전략체계를 구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비전 점검 및 개선_비전 목표 수립

센터의 비전 문구별, 비전목표, 전략목표를 제시합니다.

비전문구	세부내용	2025 비전목표
세계속의 전북을 선도하는	전북도는 과거 새만금, 군산형 일자리사업 등 내적인 성장과 혁신추진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K-pop, k-드라마 등 K-한류 이후 지속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증대와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 등의 성과로 높아진 국격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 지역에 전북을 알리고, 전북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협력을 통한 부가적 성과도 함께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이와 관련한 객관적 목표로 우호 국가, 지역의 확대를 비전목표로 구축하여 제시하고자 함 또한, 세계속의 전북을 선도하기 위해 도민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특히, 도민이 해외 국가별 문화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대형 이벤트에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우호국가와 시민단체간의 협력, 동호회 및 다양한 협회/단체간의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존재함	도 우호국가 및 지역 목표 : 13개국 20개 지역(권역별 분포) 센터 우호국가 및 지역 목표 : 5개 권역별 3개국, 국가별 3개지역 (25개국, 75개 지역, 도 우호국가및) 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 목표 : 도민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의 대상 및 범위 확대(기존 대비 200%)
공공외교 전문기관	센터는 전북도의 국제교류 담당기관으로서, 지역내 유일한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며, 이를 통해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북도가 세계속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 센터는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국가, 지역, 공공, 민간 분야별로 확대하고, 도내 공공외교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함	국제교류네트워크 구축 목표 : 대외 국가 및 지역의 민간, 공공 기관 및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도내 공공외교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비전 점검 및 개선_센터 미래상 제시

센터의 미래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021

2023

2025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공공외교 클러스터를
보유한
전북국제교류기관

국제교류 기관으로 재도약

한계와 제한
속에서 수동적으로
운영된
전북국제교류센터

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위상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센터 조직 및 경영시스템 개선
- 조직문화 개선
- 센터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확대(DB 구축 및 연계강화)
- 센터 공공외교 클러스터 구축 (부문, 참가자, 활동 주제 등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확정)

센터 위상제고 노력의 강화,
네트워크 및 공공외교 클러스터
협력 고도화

- 센터 경영시스템 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지속추진
- 센터 명칭 및 사업분야 개선 및 확대
- 중장기 전략기반 전략사업 추진
- 조직 및 인력강화(전문성 강화 포함)
- 교류네트워크 강화, 공공 외교클러스터 확대 및 강화
- 관련 신규사업 추진

- 센터 경영시스템 고도화 추진(공공기관 수준)
- 조직문화개선 지속추진
- 국제교류기관으로서 대내외적 위상 확보
- 국제교류 강화 및 확대 성과에 대한 점검과 전체 포럼 개최 등 추진
- 공공외교 클러스터 추진사업 점검 및 확대(종합 포럼 개최)

■ 제약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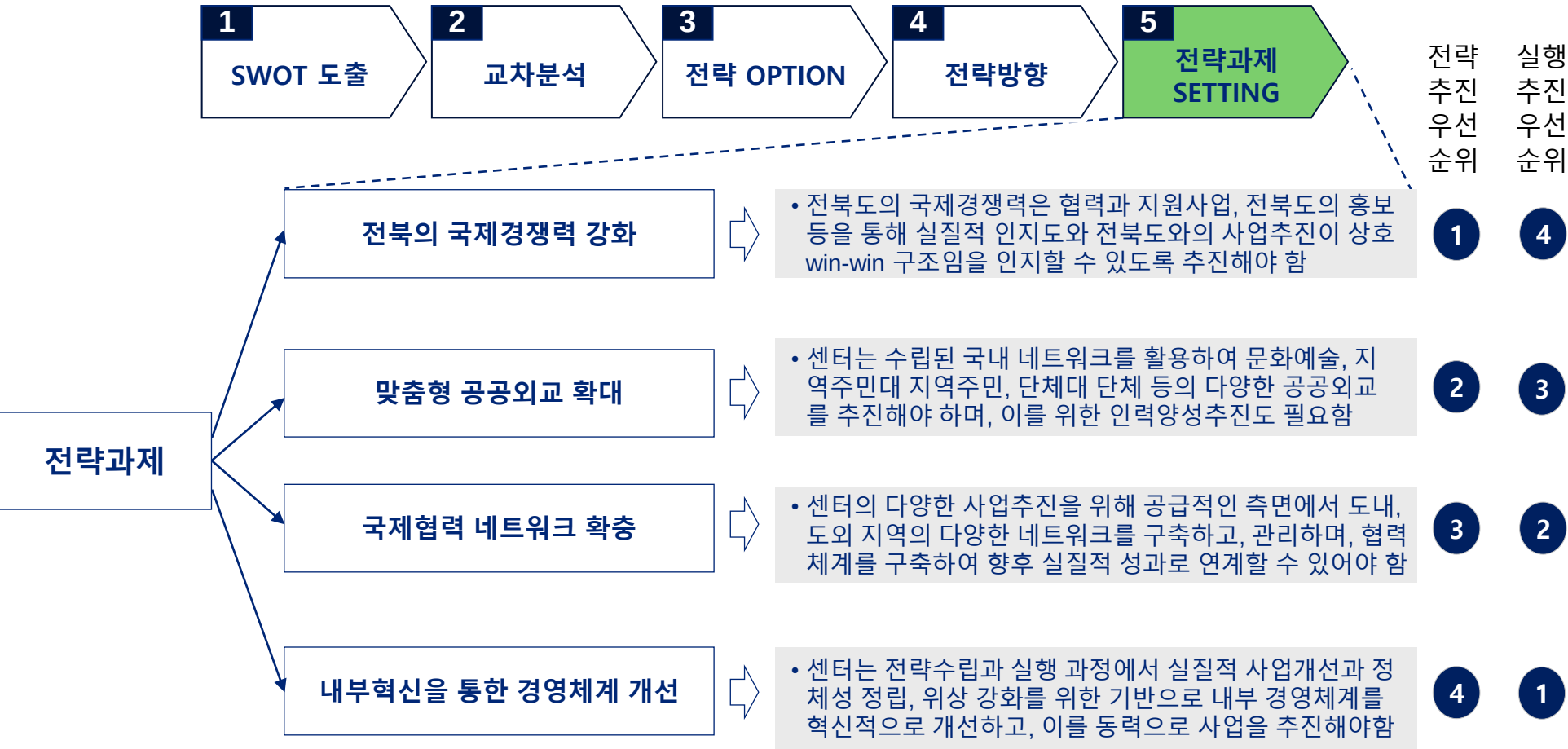
센터 내 적극적 혁신 추진의
어려움
전북도의 적극적 지원 필요

전북도 협의를 통한 명칭변경
예산확대 및 공공/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위한
전북도의 지원 필요

국제교류기관에 부합하는
조직, 인력, 지원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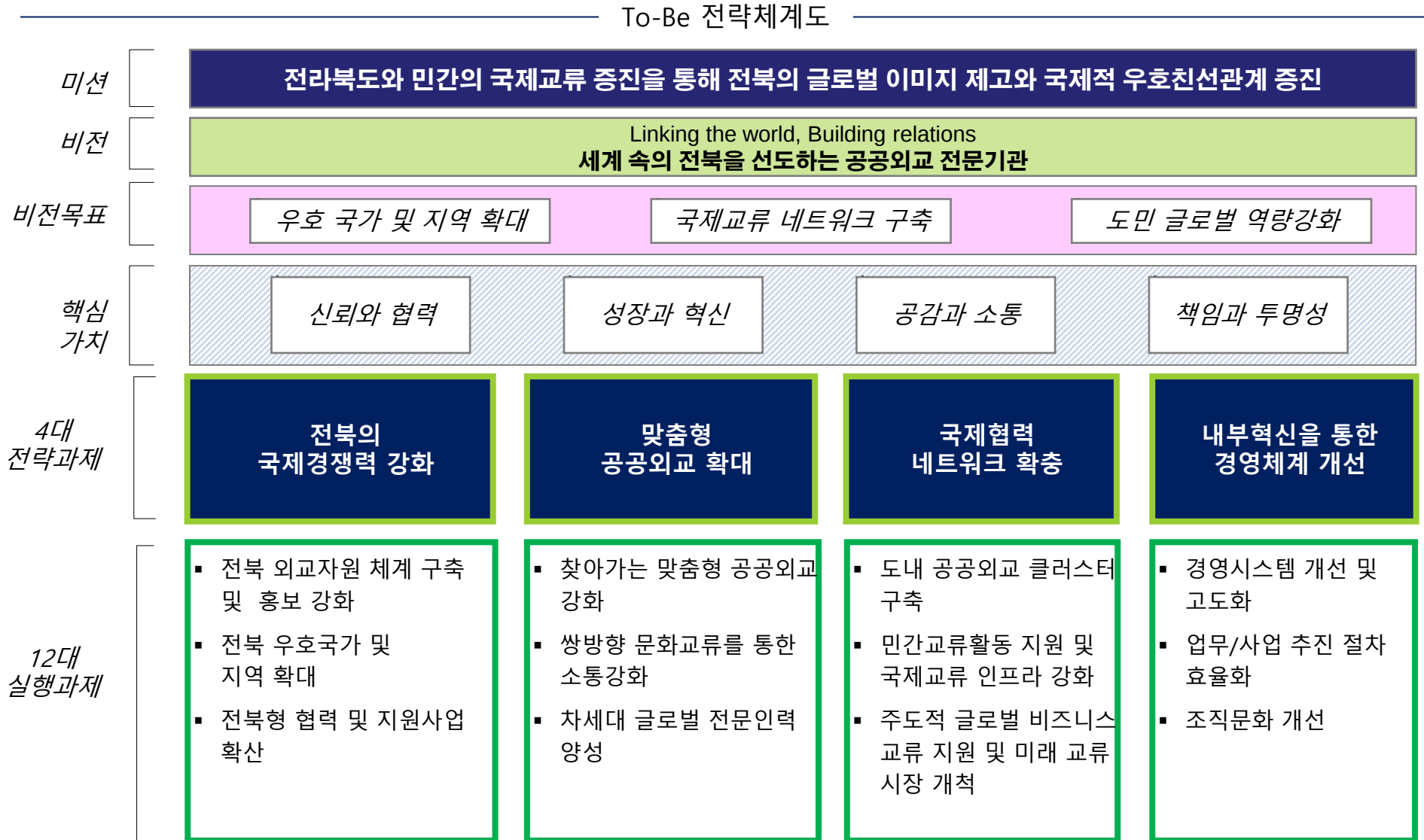
전략방향 도출_전략 과제 설정

전략 목표 설정은 향후 3~5년 이후 전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구체화하여 설정하는 것입니다.



To-Be 전략체계도

센터의 전략체계도를 개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장기 전략 실행체계_Framework

센터 중장기 발전전략의 실행을 위한 Feedback 체계는 전략수립, 목표수립, 성과검토 및 성과평가의 4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조직 전략 및 경영계획 관리체계



목적

- 차년도 전사/단위조직 전략 수립
 - 전략목표
 - 전략과제
 - 세부 실행과제 (팀)
- 차년도 평가 및 관리 KPI 선정
- 전사 목표 도출
 - 센터 및 팀 KPI 목표 설정
-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보완
 - 전략과제
 - 세부 실행과제 (팀)
- 성과개선방안 수립에 중점을 둔 중간성과 검토
 - 성과 모니터링에 근거한 부진원인 분석 및 성과 개선계획 수립
- 최종 조직성과평가
 - 최종 조직성과평가 결과와 개인 평가·보상 연계

산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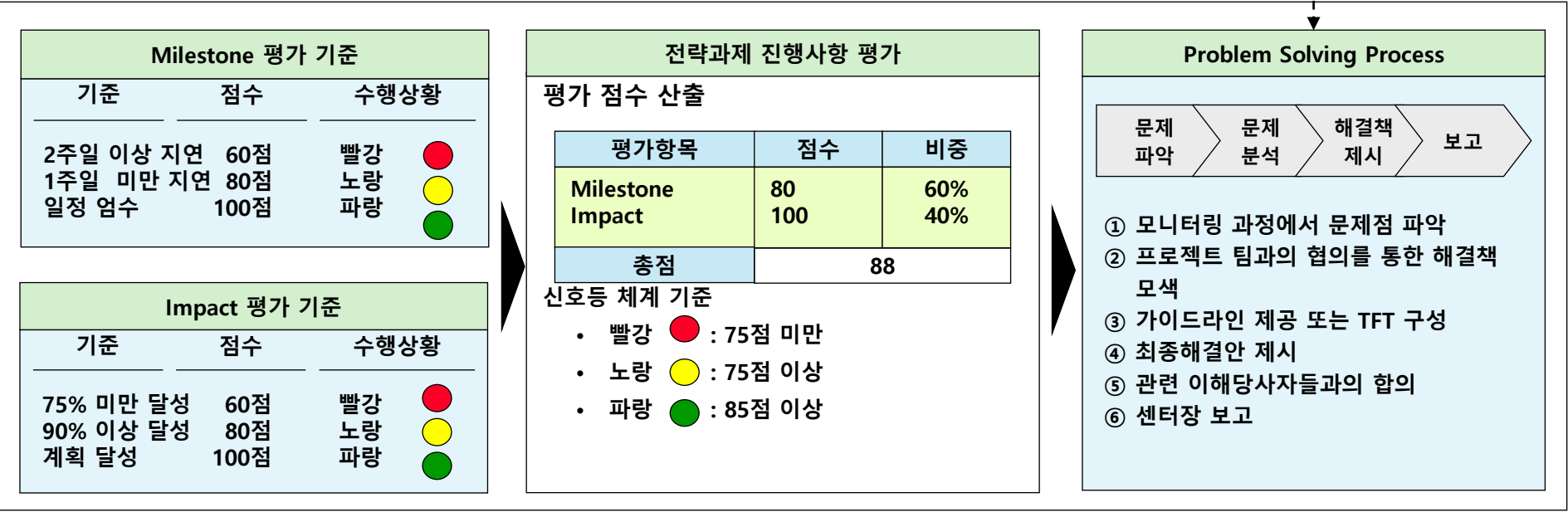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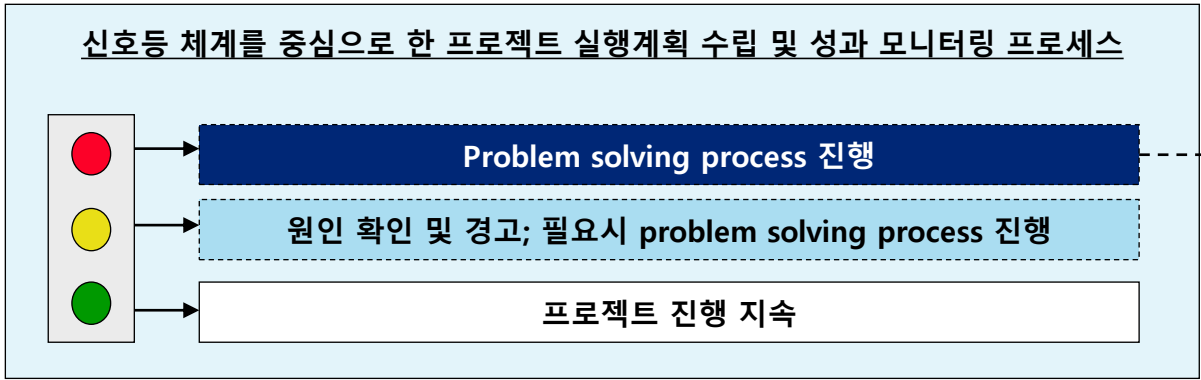
- 전사 및 단위조직 전략
 - 전략목표
 - 전략과제
 - 세부 실행과제 (팀)
- 전사 및 단위조직 목표 수준
 -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 과제 (보완)
- 실행계획
- 성과부진에 대한 원인분석 보고서
 - 구체적인 성과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 자기평가 및 평가 피드백 결과
 - 최종 평가 결과

핵심 성공요인 (CSF)

- 비전 및 전략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
- 전략 목표의 핵심성공요인과 연계된 KPI 도출
 - 객관적 Data에 근거한 전략 목표 및 과제 도출
- 전사 및 단위조직 목표에 대한 실무진의 현실성 검토
- KPI를 매개로 사실에 근거한 상하 조직간 Interaction Mode의 커뮤니케이션
- 부진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 KPI를 매개로 사실에 근거한 상하 조직간 Interaction Mode의 커뮤니케이션
- 피평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 평가자 역량
- 조직단위 특성을 반영한 평가 Scheme
- 평가 신뢰도/수용도 제고를 위한 성과조정방안
- 객관적 평가를 위한 근거 Data

중장기 전략 실행체계_전략체계 점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센터는 각 실행과제별로 주기별 점검체계(신호등체계)를 구축하여 문제 발생시 직접적인 관리체계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End of Document



Thank You